20150809-1060-2_2012528 -90216 15. 8. 7. 6:43 Page 1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 news.onnuri.org | 2015년 8월 9일(주일) 제1060호



홍콩 CGN World 설립 감사예배에서.

'홍콩 CGN World' 설립

CGNTV와 NGO 더멋진세상, 중화권 선교 교두보 마련
두 기관 협력으로 방송선교와 구호사역 동반 상승효과 기대

CGNTV와 국제개발 NGO '더멋진세상'이 함께 '홍콩 CGN World'를 설립했다. 방송선교와 구호사역을 통한 중화권 선교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지난 8월 5일 홍콩 아이콘 호텔에서 '홍콩 CGN World 설립 감사예배'를 드렸다. 홍콩 현지 교계 지도자와 한국 측 인사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홍콩 CGN World 설립으로 미주, 일본, 대만, 태국, 아랍에미리트,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해 온 CGNTV의 글로벌 사역지가 일곱 개가 됐다.
CGNTV 대표이사 유재건 장로는 "홍콩 CGN World 설립으로 대만과 홍콩을 비롯한 중화권 선교가 탄력을 받게 됐다"면서 "홍콩 CGN World는 중화권 선교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와 극동 지역 복음화를 위한 모델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홍콩 CGN World는 CGNTV와 국제개발 NGO 더멋진세상이 함께 설립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대표적인 선교교육방송 CGNTV와 2010년 출범해 지구촌 곳곳에서 지역 개발사업, 긴급구호 사업, 아동보호사업 등을 실행해 온 NGO 더멋진세상이 공동 설립한 만큼 방송선교와 구호사역의 동반 상승효과가 기대된다.
김광동 장로(홍콩 총영사)는 "CGNTV와 NGO 더멋진세상이 함께 동역하는 곳마다 복음이 전해지기를 기도한다"고 말했다.
이재훈 담임목사는 "CGNTV와 NGO 더멋진세상의 협력으로 설립된 홍콩 CGN World가 중화권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는데 활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CGNTV는 홍콩 CGN World 설립을 계기로 중화권 방송 사역 활성화를 위해 홍콩 기독교 기관들과 적극적 협력 모델을 만들어 갈 계획이다. 이를 위한 첫 걸음으로 지난 8월 6일 홍콩 창세TV와 업무 협약을 맺고 콘텐츠 교류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10면으로 이어짐〉

/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8월 비전헌금 '몽골국제대학교' 후원

교수 및 직원 모집 … 서빙고에 안내데스크 설치

오늘(9일) 봉헌하는 8월 비전헌금은 '몽골국제대학교'를 돕는데 사용된다. 몽골국제대학교는 몽골과 시베리아지역 110개 소수민족, 중국의 55개 소수민족, 페르시아 지역의 몽골계 후손 하자르족, 중앙아시아의 인재들을 양성하고 있는 선교대학이다.
몽골국제대학교 교수와 직원도 모집한다. 모집 분야는 국제경영학, 호텔경영학, 관광경영학, Computer Science, 에너지자원환경공학, 영어교육학, 예술교육학, 저널리즘학, 패션디자인학, 교양분야(사회학, 심리학, 철학, 체육학 등), TESOL 대학원, 행정대학원이다. 직원은 학교 행정 경험자나 기업체 운영 경험자를 모집한다.
자세한 내용은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관 로비에 설치된 몽골국제대학교 안내데스크에 가면 안내해 준다.

'러브소나타 오이타' 참가자 모집

8월 30일부터 4주 동안

이달 30일부터 4주 동안 러브소나타 오이타 참가자를 모집한다. 일본에서 23번째로 울려 퍼지는 러브소나타는 온천이 유명한 오이타현에서 10월 28일부터 29일까지 막 오른다. 주제는 '내일의 희망'이다.
이재훈 담임목사가 설교하고, 테너 배재철, 소프라노 김영미, 국악연주자 이슬기, 샌드애니메이션, 온누리장로합창단 등이 게스트로 출연한다.
오이타는 기독교 역사가 찬란했던 곳이다. 오토모 소린이라는 영주가 자비엘 선교사로부터 세례를 받고 개종한 이후 크리스천 인구가 1만 명이 넘을 정도로 부흥했지만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기독교 박해로 많은 순교자를 낸 곳이다. 지금은 현내 교회가 67개밖에 없을 정도로 일본에서 크리스천 인구가 가장 적은 지역 중 하나다. 문의: 02-749-1149

/ 정현주 기자

인물_ 만나고 싶었습니다 〉〉 2면 기획_ 동성결혼 합법화, 무엇이 문제인가? 〉〉 4-5면 문화_ 재미있는 선교지 이야기 '베트남의 설날' 〉〉 9면

20150809-1060-2_2012528 -90216 15. 8. 7. 6:43 Page 2

“이제 우리 집은 예수 믿는 집안입니다”

30년 만신(萬神)으로 살아온 어머니 회심 시킨 김기범 성도





김기범 성도의 어머니 고 장옥순 성도.

지난 2일 여기는 인천 온누리교회. 김기범 성도를 만났다. 선한 인상이 인상적이다. 그의 얼굴에는 하늘의 미소가 가득했다. 기자에게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이며 어머니 故장옥순 성도와 함께 한 시간을 회고했다.

김기범 성도의 어머니 장옥순 성도는 18살에 시집을 왔다. 가난했던 시절 3남 3녀의 자녀를 두었다. 남편이 오랜 시간 지병을 앓고 있었는데 답답한 마음에 점을 보러 다녔다. 결국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자 장옥순 성도는 굿판에서 일을 하며 먹고 살다 신 내림까지 받았다. 그때부터 30년 동안 무속인으로 살았다.

김기범 성도 고등학교 시절. 만신(萬神)이 된 어머니가 보기 싫어 여자 친구를 따라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다.

“어머니께서 제가 교회 다니는 것을 아셨어요. 성경책을 장독대 밑에 숨겨 뒀는데 어머니께 걸려 야단을 맞았지요.”

이십대 초반 군에 입대한 김기범 성도는 말년에 동기의 권유로 다시 교회를 찾았다. 동기를 따라 기도원에 가서 울면서 기도했다.

“만신인 어머니가 법당을 모시고 사는 모습이 안쓰러웠어요. 어머니를 위해 찬양하고, 기도했어요.”

김기범 성도에게도 신앙의 위기가 찾아왔다. 집 근처 교회를 찾았는데 통일교였다. 아무것도 모르고 갔다 큰일 날 뻔 했다고 회상했다. 이후 두 번, 세 번 다른 교회를 찾아다녔다. 직장생활도 녹록치 않았다. 한마디로 광야였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마음고생을 얼마나 심하게 했던지 직장 동료가 교회 다닐 것을 권유했다. 김기범 성도를 향한 부르심이 먼저였던 것이다. 김기범 성도가 하나님을 만나자 이번에는 어머니 차례였다.

2개월 뒤 김기범 성도와 같은 교회를 다니던 한 성도가 심방을 하겠다며 찾아왔다. 그는 만신인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흔쾌히 복음을 받아들였다. 이게 웬일일까.

“어머니께서 아들을 위해 내가 뭘 못 하겠냐면서 복음을 받아 들이셨어요.”

어머니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현실이 변하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그 길로 만신의 길을 내려놓고 20년 동안 피던 담배도 끊었다.

“‘있을 때 잘해’라는 말이 있죠. 진작 잘할 걸…. 아쉬움이 남아요. 어머니가 무척 그립습니다.”

인천 온누리교회 김기범 성도가 가장 사랑한 어머니 장옥순 성도는 7월 23일 00시 26분 향년 78세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한글을 몰라 성경을 읽지는 못했지만 두 손 모아 아멘을 외치던 참 고운 분이셨다.

장옥순 성도는 30년간 만신(萬神)으로 살았다. 만신은 무녀를 높여 부르는 말이다. 30년 넘게 무녀로 산 어머니가 아들 김기범 성도를 통해 회심했다. 기적적인 일이다. 김기범 성도는 2011년 11월 27일 어머니가 세례 받던 날이 아직도 생생하다고 했다. 도저히 잊을 수 없는 날이라고 했다. 지난 2일 인천 온누리교회 김기범 성도가 어머니와의 아름답고도 슬픈 이별이야기를 들려줬다.

/ 김미림 기자 mirim@onnuri.org

모자(母子)가 함께 세례 받던 날

2010년 11월. 김기범 성도는 하용조 목사의 비전에 감동해 인천 온누리교회에 왔다. 온누리교회에 와서 그의 삶이 변화되었다.

대부분 새신자들이 새가족 등록 과정을 마치면 세례교육을 받는데 김기범 성도에게는 시간이 더 필요했다. 1년 동안 마음의 준비를 해야 했다. 어머니와 함께 세례를 받고 싶었기 때문이다. 함께 세례를 받자는 아들의 제안에 어머니 장옥순 성도가 흔쾌히 승낙했다. 그렇게 2011년 11월 27일 모자(母子)가 함께 세례를 받았다.

세례 받던 날. 김기범 성도가 대표로 세례 간증을 읽는데 어머니 장옥순 성도가 큰 소리로 울음을 터트리며 “주여~!”라고 외쳤다. 이 날 세례식은 눈물바다가 됐다.

어머니 장옥순 성도의 삶도 완전히 달라졌다. 한글을 읽지 못해 성경을 읽지는 못했지만 큐티를 하고, 순모임에도 꾸준히 참석했다. 만나는 동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자랑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권면했다.

당시 장옥순 성도의 큰아들이 사업 때문에 형편이 어려웠다. 큰아들과 사이가 좋지 않아 등을 돌렸었지만 그녀가 예수를 믿고 나서 그 미움이 사라졌다. 한 지붕 아래서 살게 될 정도로 관계가 회복됐다.

어머니뿐만 아니라 다른 가족들도 예수님을 만났다. 김기범 성도를 통해 어머니가 회심했고, 이어 큰형과 큰누나도 복음을 받아들였다. 그 원동력은 인천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중보기도였다. 김기범 성도는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인천 온누리교회 성도들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했다. 성도들의 중보기도가 김기범 성도에게 가장 큰 힘이 되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기도가 온 가족이 회심하는 놀라운 일을 가능하게 했다.

“어머니께서 교회 가는 것을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몰라요. 11시30분 예배를 드렸는데 9시부터 꽃단장을 하셨어요. 단장을 하면서 소녀처럼 좋아하셨어요.”

2년 전부터 김기범 성도가 어머니 손을 붙잡고 함께 교회에 나오던 모습이 뜸해지기 시작했다. 장옥순 성도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기 때문이다.

그러다 지난달 6일 병원에 갔다. 검사결과가 좋지 않아 하루 뒤 큰 병원으로 옮겨졌다. 각종 정밀검사가 진행됐다. 검사 결과는 믿을 수 없었다. 말기암이었다. 이미 암 세포가 퍼질 대로 퍼진 상태였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다. 김기범 성도는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병간호를 도맡았다. 어머니는 진통제를 투여 받으며 고통 속에 있었다. 잠을 자지 못하고, 답답하다는 증세를 호소하기를 반복했다.

“그 기도가 응답됐어요”

김기범 성도는 어머니 곁에서 기도했다.

“예수님은 어머니를 사랑하세요. 꼭 천국 가실 거에요.”

어머니는 무의식중에서도 “아멘! 아멘”을 외쳤다. 그러다 또 일이 벌어졌다. 환각 상태로 선망증세를 보이던 장옥순 성도가 화장실을 가던 중 갑자기 쓰러졌다. 가족들 모두 있던 자리에서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다. 정말 순식간이었다. 다리가 부러져 수술을 할 수 밖에 없었다. 수술 동의서를 작성하는데 ‘환자의 악화된 병세로 깨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다. 불길했다.

수술을 마치고 장옥순 성도는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김기범 성도는 다니고 있던 직장의 신우회와 인천 온누리교회에 다급히 중보기도를 요청했다. 그러나 병원 측에서는 이미 회복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한 것 같았다. 김기범 성도는 중환자실에서 장옥순 성도의 임종예배를 드렸다. 그는 끝까지 어머니 곁을 지켰다.

“언젠가 어머니의 장례식은 기독교식으로 치르고 싶다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됐어요.”

김기범 성도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어머니 장옥순 성도는 7월 23일 세상을 떠났다. 인천 온누리교회는 김기범 성도 어머니의 장례를 성심성의껏 도왔다.

천국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 김기범 성도를 담대하게 만든 모양이다. 그는 모든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우리 집은 예수 믿는 집안입니다”라고 선포했다. 김기범 성도의 큰형도 찬송을 흥얼거렸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어머니의 회심, 큰형의 변화, 큰조카, 큰누나와 딸도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다.

김기범 성도가 어머니의 사진을 어루만지며 고백했다.

“어머니의 빈자리를 복음의 메시지로 채우겠습니다. 하나님 일 열심히 하며 살겠습니다.”

20150809-1060-2_2012528 -90216 15. 8. 7. 6:43 Page 3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요한일서 3:11~24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날마다 구원의 감격과 축복을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조직의 행동과 의사결정에 대한 전문가인 스탠포드 대학의 제임스 마치 교수는 사람들이 결정을 내릴 때 두 종류의 의사결정 모델 중 하나를 선택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결과를 중시하는 모델입니다. 비용과 이익을 따져서 나에게 어떤 유익이 돌아올지를 생각하는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단기적인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다른 하나는 정체성을 중시하는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생각하고 결정을 내립니다. 주로 장기적인 의사결정을 할 때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체성에 근거한 결정이 아니면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변화가 생기지 않습니다. 법이 아무리 정교해도 범죄가 끊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체성이 변화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옳고 그름을 아는 지식으로는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하면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체성이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를 시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정체성을 올바르게 확립하도록 만들기 위해 많은 시간을 할애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계획하신 것이 바로 정체성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받는 자녀입니다"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얼마나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게 됐으니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것은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요일 3:1).

이 말씀이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하게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가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체성을 깨달을 때 올바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당신은 누구입니까?"라고 질문하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대개 하고 있는 일을 설명하거나 태어난 지역을 말합니다. 과거의 직책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것보다 중요한 정체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받는 자녀'가 바로 그것입니다. 누군가 "당신은 누구입니까?"라고 질문하면 "저는 하나님의 사랑 받는 자녀입니다"라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 정체성이 확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인생을 아무렇게 살거나 잘못된 삶을 사는 이유는 누구가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인식이 마음속에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나도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사랑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만약 그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깨달았다면 방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인생을 잘못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정체성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정체성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방탕하게 살다 돌아온 동생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형입니다. 그는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께 봉사했고, 의무를 다했습니다. 그런데 집을 나갔다 돌아온 동생이 아버지의 환영을 받는 것을 보고 불평하고 분노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정체성이 확립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버지께 순종했고, 의무를 다했지만 아버지가 그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동생과 마찬가지로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인정을 받으려고 의무를 다한 것이지 기쁨으로 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합니다. 요한일서는 무너지고 망가진 정체성을 다시 세워주기 위해 기록된 책입니다. 요한일서에서는 유독 '알다'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확신시켜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앎'이라는 단어와 '삶'이라는 단어를 같은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앎과 삶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요한일서는 우리에게 계속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정말 아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아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알아야 할 또 하나의 정체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에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다"(14절).

무엇을 안다는 것입니까.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옮겨질 것'이라는 미래형으로 말씀하지 않고, '옮겨졌다'는 과거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죽음 안에 있다가 생명으로 옮겨질 것을 바라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졌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생이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요 5:24).

영생이 있다는 것은 현재형입니다.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미래형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은 과거형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기 위해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설명한다면 종교적 율법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기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사랑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이기에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엔트로피 법칙과 신트로피 법칙

여러분, 의무감은 우리를 절대로 행복하게 하지 못합니다. 믿음 생활이 행복하지 못한 것은 종교적 의무감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는 종교적 의무에 머무는 것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면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형제들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 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의무가 기쁨입니다.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존재라는 것을 잘 설명해주는 책이 있습니다. 김영길 장로님이 쓴 〈신트로피 드라마〉입니다. 이 책은 과학법칙과 상반되는 법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엔트로피 법칙은 1864년 독일의 물리학자 클라우지우스가 최초로 사용해서 알려졌습니다. 이 법칙은 모든 물질은 질서에서 무질서로 변해간다는 것입니다. 퇴화하고, 소멸해가고, 붕괴해가고, 부패해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체는 엔트로피 법칙을 따르지 않고 신트로피 법칙을 따른다고 합니다.

신트로피 법칙은 1941년 이탈리아의 수학자 루이지 판타피가 도입했고, 비타민C를 발명한 헝가리 태생 알베르트 센트죄르지가 인용했다고 합니다. 생명체는 무질서에서 질서로 향하는 신트로피 법칙이 작용해서 질서도가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생명 안에는 엔트로피 법칙이 아니라 신트로피 법칙이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엔트로피 법칙만 존재하는 것처럼 점점 무질서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죄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고, 갈등하고, 분쟁하고, 싸우고, 전쟁하기 때문입니다. 물질세계에 존재하는 엔트로피 법칙에 사로잡힌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 안에는 신트로피의 법칙이 강하게 작용합니다. 서로 모르던 사람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고, 갈등하던 사람들이 화목하게 되고, 상처 입은 사람들이 회복되는 것이 바로 신트로피 법칙입니다. 이 세상에는 엔트로피 법칙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있고, 신트로피 법칙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엔트로피 법칙을 따라 사는 대표적인 인물이 나옵니다. 가인입니다. 가인은 아벨을 질투하고, 미워해서 살인까지 했습니다. 자신 안에 있는 미움과 질투로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은 엔트로피 법칙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을 보십시오. 그 형제들은 요셉을 질투하고, 미워해서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울을 보십시오. 백성들의 사랑을 받는 다윗을 질투하고, 미워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모두 동일한 패턴입니다. 죄에 사로잡힌 엔트로피 법칙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이면 갈등하고, 미워해서 붕괴되고, 쇠퇴합니다.

정반대 흐름이 또 있습니다. 신트로피 법칙입니다.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고, 그들을 축복함으로서 새로운 백성들의 물줄기를 탄생하게 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복수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로 모든 고난을 이김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었습니다.

〈13면에 계속〉

20150809-1060-2_2012528 -90216 15. 8. 7. 6:43 Page 4

동성결혼 합법화,

성 윤리, 가정과 사회 붕괴 시킬 위험, 종교 자유도 침해
건강한 가족제도 기준 애매모호해져 … 최대 피해자는 자녀들

지난 2000년 배우 홍석천이 커밍아웃을 했다. 이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동성애는 입에 담기도 어려운 단어였다. 15년이 지난 지금은 어떨까. 세월호 침몰사고로 온 나라가 슬픔에 잠겨있던 지난해, 신촌에서 열린 퀴어(성소수자)문화축제에 3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몰려들었다. 우리나라 동성애 문제, 더 이상 경홀히 여길 문제가 아니다. 최근 동성결혼 합법화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다.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동성결혼 합법 판결을 내린 여파가 우리나라에도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다. 교계와 여러 시민단체들이 '동성결혼 합법화 반대 탄원서'를 제출하고 동성결혼 반대운동을 펼치고 있다. 온누리교회도 지난달 26일 국내 캠퍼스에서 동성결혼 반대 탄원 서명을 실시했다. 동성애와 동성결혼 합법화, 왜 문제이고 왜 반대해야 하는지 전문가에게 물었다.

/ 편집자 주



이태희 목사

미국 변호사
강동 온누리교회 파트목사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 자문위원
한국교회동성애대책위원회 자문위원

지난 6월 26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미 연방 수정헌법 제14조에 의거 "미국의 모든 주정부는 동성결혼을 허용해야 한다"고 최종 판결했다. 이로써 미국은 전 세계에서 21번째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국가가 되었다. 이 같은 상황에 발맞춰 7월 6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는 영화감독 김조광수씨와 김승환씨가 동성결혼 허용을 요구한 '혼인신고 불수리처분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에 대한 첫 심문이 열렸다. 한국에서도 동성결혼 합법화를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이 시작된 것이다.

이 사건의 핵심쟁점은 '대한민국 헌법과 민법이 과연 동성결혼을 금지하고 있는가?'에 관한 것이다. 이들의 변론을 맡은 변호인단은 "민법 조문 어디에도 동성 간의 혼인을 금지하는 조항은 없다"며 이들의 동성결혼은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들의 주장처럼, 대한민국 민법에는 근친혼(제809조), 중혼(제810조), 미성년자 등의 결혼을 제한(제808조)하는 조항만 있을 뿐,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 하지만 그것은 민법 제정자들이 동성결혼을 인정했기 때문이 아니라, 금지조항의 필요성 자체를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 제36조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兩性)의 평등을 기초로 설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헌법 조항을 근거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혼인을 "1남1녀 간의 정신적, 육체적 결합"이라고 규정했다. 즉, 헌법(제36조1항)이 보장하는 혼인관계는 '양성(兩性)의 결합'에 국한된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동성결혼 합법화는 대한민국의 헌법적 질서를 전면으로 부정하는 것일 뿐 아니라, 건강한 사회의 근간이 되는 혼인제도와 가정질서를 뒤엎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다.

동성결혼, 창조주로부터 양도받은 권리 위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적지 않은 사람들이 동성애자들의 '인권' 혹은 '행복추구권'을 내세워 동성결혼 합법화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동성결혼 합법화의 문제점을 제대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권'의 진정한 의미부터 되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UN헌장(1945년)과 세계인권선언문(1948년)의 기초가 된 미국 독립선언문(1776년)은 인권을 '창조주로부터 양도받은 권리'라고 규정했다. 이는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첫째는 인권 즉 인간의 권리는 창조주로부터 양도받은 권리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함부로 그 권리를 침해할 수 없음을, 둘째는 창조주로부터 양도받은 권리이기 때문에 창조주가 양도하지 않은 권리는 인권의 범주에 포함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즉,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권리는 창조주가 인간에게 부여한 '절대적인 권리'임과 동시에, 창조주가 허용한 범위 내에서만 누릴 수 있는 '제한적인 권리'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동성애를 허용하신 일이 없다. 동성애가 인권의 범주에 포함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물론 우리 사회는 이와 같은 '인권'의 개념을 인정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권리는 '창조주'가 아닌 '인간'으로부터 나온다. 자기가 자신에게 부여하는 권리, 즉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수 있는 권리'가 오늘날 인권의 개념이다. 하지만 창조주 하나님을 부정하는 인본주의적 인권은 인권의 중요성을 스스로 부인하는 자기모순에 빠질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소나 돼지는 도살하면서 인간을 학살하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나치의 유태인 학살을 반인권적 만행이라고 매도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모든 윤리 도덕적 기준이 창조주가 아닌 인간 자신에 의해 결정된다면, 히틀러의 윤리적 기준을 비판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인간을 동물처럼 대하면 안 되는 이유는 물론 자명하다. 인간이기 때문이다. 인간이란 존재는 다른 동물이나 피조물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지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그리고 누가 그런 지위를 인간에게 부여한 것인가? 인본주의 세계관은 그와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갖고 있지 않다. 결국,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는 인본주의적 세계관에 따르면 인권은 중요하지 않을 뿐 아니라 존재할 수도 없다. 자신의 권리만이 중요할 뿐이다. 이처럼 오늘날 인본주의적 세계관에 입각한 인권운동은 인권의 절대성을 주장하면서도 그 절대성을 부여한 창조주를 거부하는 이중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모순에 빠질 수밖에 없으며, 그와 같은 모순은 C. S.루이스가 예견한 바와 같이 결국 인간 자신을 파괴하는 역설로 끝을 맺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진정한 인권을 위해서는 창조주가 인간에게 부여한 권리 즉 생명권, 자유권,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면서도, 창조주가 허용한 범위 내에서만 누릴 수 있도록 그 한계를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 그 때 비로소 개인과 사회는 진정한 자유와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바로 이와 같은 인권의 절대성과 제한성을 잘 반영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자신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 즉 인권을 보장받는다. 그렇다고 무조건적인 권리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대한민국 헌법 37조2항에 따르면,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라고 그 한계를 분명히 못 박고 있다. 따라서 그들이 동성애자이든 일반인이든 상관없이 그들의 자유와 권리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에 위협을 가할 경우에는 법률로서 제한을 가하는 것이 마땅하며, 그와 같은 제한은 차별도 아니고 인권침해도 아니다.

동성결혼 합법화 반드시 금지되어야

그렇다면 동성결혼은 국가의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해 반드시 금지되어야 하는가? 반드시 금지되어야 한다.

첫째, 동성결혼 합법화는 '건전한 성(性) 윤리'를 붕괴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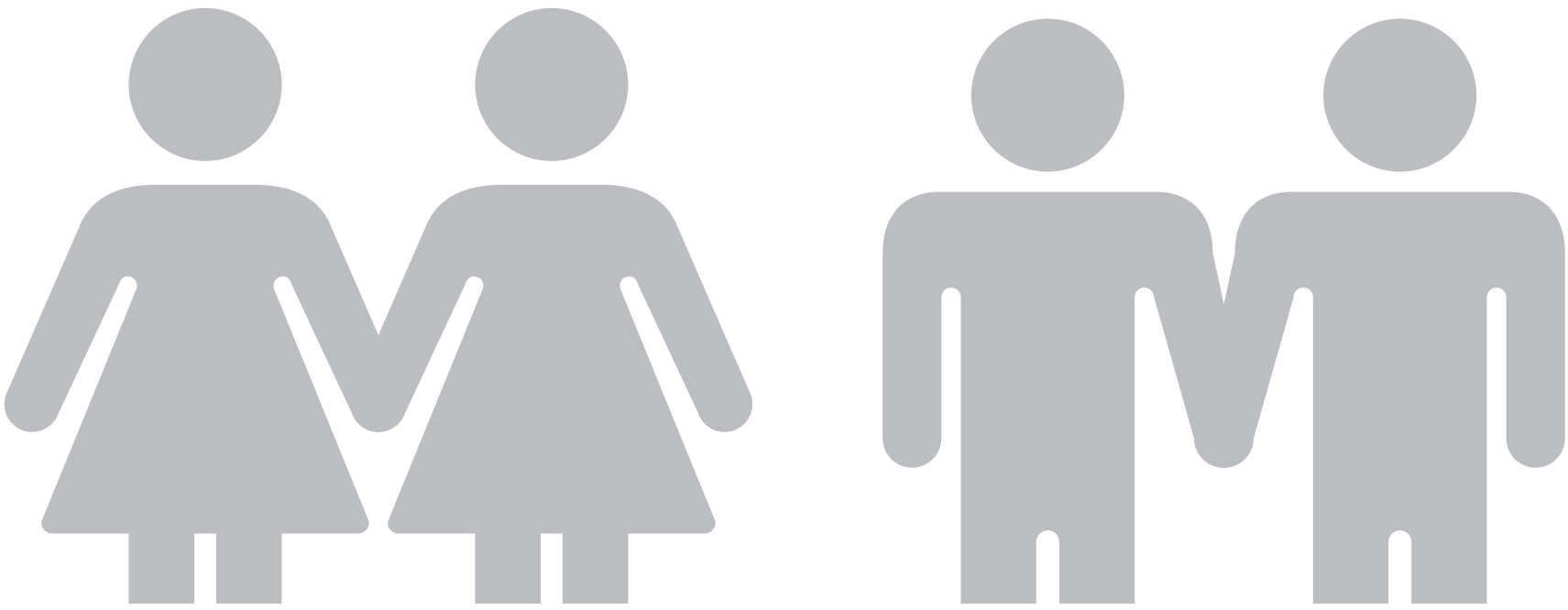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도록 명령하셨다(창1:27~28). 이를 위해 인간에게 허락하신 것이 바로 성(性)이다.

성(性)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축복 중의 축복이다. 서로 사랑하는 두 남녀가 정신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하나가 되어 천하보다 더 귀한 생명을 만들어 내는 축복의 통로가 바로 성(性)이다. 성(性)은 인간 세상을 다스리는 창조질서의 핵심 축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평생을 서로에게 헌신하기로 서약한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만 성(性)을 누릴 수 있도록 허용하셨고, 그 외의 모든 성적 관계를 '간음'으로 규정하셨다(출 20:14). 따라서 혼전 성관계, 혼외 성관계 그리고 동성 간의 성관계는 전부 간음이며, 이와 같은 성적 범죄는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허무는 가장 강력한 도구다. 그런 의미에서 동성결혼의 합법화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허락하신 성 윤리를 가장 완벽하게 붕괴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캐나다의 사례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캐나다 온타리오 주의 모든 공립학교는 유치원생부터 모든 학생들에게 아버지와 아버지만으로 이뤄진 가정, 어머니와 어머니만으로 이뤄진 가정도 정상적인 가정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또한 동성애자나 성전환자에 대

20150809-1060-2_2012528 -90216 15. 8. 7. 6:43 Page 5

무엇이 문제인가?



한 편견을 없애기 위해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동성애와 성전환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본인의 성향이나 선택에 의해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 있는 것이라는 개념을 단계적으로 심어주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1학년(6세) 아이들에게는 '성기'에 대해, 3학년(8세) 아이들에게는 동성연애와 성적 정체성(동성, 양성, 성전환자의 개념)에 대해, 6학년 학생들에게는 '자위행위'의 즐거움, 7학년 학생들에게는 이성 간의 성 관계뿐 아니라, 여성 간의 성행위 및 남성 간의 항문 성교에 대해 교육해야 한다. 이런 교육 커리큘럼에 대해 학교측은 학부모에게 사전 공지를 할 필요가 없으며, 학부모가 자녀의 수업참여 여부를 결정할 권한도 허용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성전환을 했거나 타고난 성을 따르지 않는 학생들과 직원들은 자신의 성을 증명할 필요 없이 자신이 선택한 성에 따라 가장 편안한 화장실을 이용할 권리를 보장받는다. 이것이 바로 동성결혼이 통과된 대한민국 미래의 모습이다. 이와 같은 교육을 받고 성장한 아이들이 장차 어떤 성 윤리를 가지고 살아갈지는 너무나 자명하다.

뿐만 아니다. 세계적인 권위를 가진 학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The Journal of Sex Research〉에서 2,583명의 성인 동성애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평생 동안 가지는 성적 파트너의 최빈수 범위가 101명~500명이었다.

10.2%~15.7%의 동성애자들은 501명~1000명의 파트너와 관계를 맺었으며, 또 다른 10.2%~15.7%는 1,000명 이상의 파트너들과 성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유명 동성애자도 서울대학교에서 진행되었던 특강에서 중고등학교 시절에만 300명 이상의 남자 선배와 성관계를 가진 바 있다고 밝힌 바가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혼전순결의 개념이나 평생결혼의 개념은 설 자리가 없다. 18세기의 프랑스 철학자 몽테스키외는 "풍요는 부에 있지 않고 도덕에 있다"고 말했다. '도덕'은 '부'를 담는 그릇이다.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성 윤리는 건강한 개인, 건강한 가정과 사회를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성 윤리가 붕괴된 사회는 결코 지속적인 풍요를 누릴 수 없다. 그래서 〈로마제국쇠망사〉의 저자 에드워드 기본(Edward Gibbon)은 로마제국이 멸망하게 된 7가지 이유 중 하나로 '성 윤리의 붕괴'를 언급했다. 건전한 성 윤리는 창조질서의 핵심 축이요, 건강한 사회의 기초다. 동성결혼의 합법화는 건강한 성 윤리의 해체를 가져와 건강한 가정과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치게 될 것이다.

둘째, 동성결혼 합법화는 '건강한 가정과 사회'를 약화시킨다.

'성'은 '가정'을 만들고, 가정은 '사회'를 만든다. 성 윤리가 붕괴되면 가정이 붕괴되고, 가정이 붕괴되면 사회가 붕괴된다.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에 따르면, 1970년에서 1996년 사이 연방 복지비 중 2억 2천 9백만 달러가 가정 파괴로 인해 지출됐다고 발표했다. 이뿐 아니라, 2008년 연구에 따르면 이혼과 미혼 및 독신 부모를 위해 최저 생활 보장 제도 기금 중 1억 1천 2백만 달러가 매년 사용됐다고 한다.

프린스턴 대학교 조지 맥코믹 법대 교수는 "가족 제도가 손상되고 무너진다면 개인의 삶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확대될 수밖에 없고, 때문에 경제 성장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이런 의미에서 동성결혼 합법화는 건강한 가족제도를 손상시킬 뿐 아니라, 국가 경쟁력에도 큰 부담을 안겨주게 될 것이다.

일단, 동성결혼이 합법화 되면 전통적인 결혼의 개념을 재정의해야 한다. 동성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결혼을 1남1녀의 결합으로 한정하지 않고 열린 개념으로 재정의하게 된다면 굳이 두 사람으로 결혼이 이뤄져야 한다는 기준도 모호해질 수밖에 없다. 일부다처제, 일처다부제, 또는 집단결혼과 같은 다양한 형태까지 결혼의 개념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수밖에 없다.

동성결혼 합법화 되면, 근친결혼, 일부다처제도 인정하라 요구

2001년 세계에서 가장 먼저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네덜란드에서는 이미 근친결혼과 일부다처제를 인정하고 있다. 미국 몬테나 주에서 살고 있는 네이선 콜리어는 미국 대법원에서 동성결혼 합법화 판결을 내린 직후, 몬테나 주 법원에 일부다처제를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시카고대학교 법학교수 윌리암 보드는 미국 내 일부다처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동성결혼처럼 짧은 시간 안에 사라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믿기 어렵겠지만, 서구사회에서는 이미 인간과 동물의 결혼도 합법화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기 시작했다. 그들의 논리는 아주 단순명쾌하다. "동성 간의 결혼은 허락하면서 왜 동물과의 결혼은 차별하는가?"이다.

이처럼 동성결혼의 합법화는 건강한 가족제도의 붕괴로 이어지게 될 것이며, 그것의 최대 피해자는 결국 우리의 자녀들이 될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동성 부부는 아이를 출산할 수 없기 때문에 인구 감소와 국가 노동력의 약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고, 설령 입양을 한다 하더라도 여러 사례를 통해 나타나는 것처럼 심각한 정서적, 심리적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특별히, 동성애의 확산은 국민의 건강과 복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2011년 미국 질병통제센터(CDC) 통계에 따르면,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된 13세~19세의 청소년들 중 94.9%가 동성애를 통해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청소년 에이즈 환자의 수도 지난 10년 동안 약 10배 이상 증가했는데, 그 핵심적인 요인은 단연 동성애다. 흡연자가 비흡연자에 비해 폐암에 걸릴 확률이 20배라면, 동성애자가 에이즈에 걸릴 확률은 무려 200배다. 에이즈 감염자의 1인당 한 달 약값만 약 3백만원이다. 1년이면 3천 6백만원, 1만 명이면 연간 3천 6백억원이 드는 것으로 추산된다. 그리고 이 모든 치료비용은 100% 국민 세금으로 지원된다. 지금 같은 추세로 에이즈가 급증한다면 그 모든 재정적 부담은 고스란히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몫이 되는 것이다.

셋째, 동성결혼 합법화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이후 영국에서는 동성애자 목사가 동성애자 커플의 주례를 집례하고 있고, 동성애 교육을 거부했던 크리스천 교사는 학교로부터 면직처리를 당했다.

최근 뉴욕 타임즈 컬럼니스트이자 동성애자인 프랭크 브루니(Frank Bruni)는 자신의 칼럼을 통해서 "게이, 레즈비언, 양성애자들을 죄인이라고 보는 것은 오래된 문서에 기초한 판단"이라면서 "동성애자들을 포용하기 위해 성경을 다시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애틀랜타에 소재한 스틸워터스 연합감리교회의 캐롤 헐슬랜더 목사는 "결혼에 대한 전통적인 입장을 지지하고, 동성애에 반대할 것"을 교단에 촉구하는 탄원서에 서명한 이후, 교단으로부터 목사직을 면직 당하는 어처구니없는 일도 발생했다. 이처럼 동성애가 확산되고 동성결혼이 합법화되면 동성애를 금지하고 있는 성경책은 비정상적인 책으로 전락하게 되며, 성경을 믿고 따르는 크리스천들 역시 비정상적인 집단으로 전락하게 된다. 비정상적인 크리스천 집단에 대해 가해지는 처벌과 제한은 공공의 선을 위해 정당한 것으로 간주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동성애자들의 권리를 위해 그리스도인들의 권리가 역차별 당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창세기 41장에 보면 바로의 꿈 이야기가 나온다. 흉하게 마른 일곱 암소가 아주 아름답게 살진 일곱 암소를 잡아먹는 꿈이었다. 연이어서 두 번째 꿈을 꾸게 된다. 이번에는 가늘게 말라 비틀어진 일곱 이삭이 무성하게 자란 일곱 이삭을 다 삼켜버리는 꿈이었다.

나는 이 환상이 하나님께서 오늘날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에게 주시는 환상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한국에서는 한국 사회와 교회의 근간을 뒤흔들만한 아주 심각한 변화들이 진행되고 있다. 흉하게 마른 암소가 아름답게 살진 일곱 마리 암소를 다 삼켜버렸던 것처럼, 건강하고 아름다운 우리의 가정과 교회, 학교와 사회를 삼켜버리기 위한 파상공세가 펼쳐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교회가 현실을 똑바로 직시하고 요셉과 같은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며, 이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거룩한 제사장 국가로 사용해 주실 것을 믿는다. 아멘.

20150809-1060-2_2012528 -90216 15. 8. 7. 6:43 Page 6

서대문공동체

유라시아 A국 아웃리치

그곳에 성령이 임했다



김용희 집사 (마태1순)

이번 서대문공동체 아웃리치 표어는 '회복시키소서' 였다. 주제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이었다. 표어와 주제 말씀처럼 서대문공동체는 7월 8일부터 15일까지 유라시아 A국에서 성령의 권능과 회복을 경험했다.

우리가 처음 방문했던 1교회는 알코올 및 마약 중독 치유센터를 겸하고 있었다. 교인들 중에서도 치유 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 대여섯 명의 교인들이 목회자도 없이 쓸쓸히 교회를 지키고 있었다.

열악한 상황이었다. 우리가 그 교회에 도착했을 때 성도들이 반기지 않았다. 거북해하는 모습이었다. 여럿이 등장한 우리를 보고 반응이 좋지 않았다.

그곳에서 우리는 여름성경학교와 이·미용 사역을 했다. 우리가 그들을 극진하게 섬기니 그들도 차츰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 어려운 과정을 보내면서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그들이 존경스러웠다.

아웃리치 둘째 날. 목사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앞으로 예수 믿고 살 사람은 일어나라"

참석했던 사람들이 일어났다. 기적 같은 일이었다. 사역이 끝날 무렵 그들의 표정이 달라졌다. 갑자기 젊어진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처음에는 그곳에 할머니들만 계신 줄 알았는데 다시 보니 아니었다.

그들은 젊은 사람들이었다. 마을에서 만난 어린이들도 너무나 순수한 영혼을 가지고 있었다. 정말 사랑스러운 아이들이었다. 우리는 그 순수한 어린이들이 앞으로 이 나라의 희망이 될 것이라고 믿고 기도했다. 지금도 그 기도를 계속하고 있다.

두 차례에 걸쳐 성령집회도 열었다. 이곳에서 처음으로 열린 성령집회였다. 성도들은 성령집회를 굉장히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다. 가뭄 뒤에 비가 온 것처럼 성령의 역사가 폭발했다. 성령의 역사를 처음 본 사람들이 통역하는 양화경 집사에게 다가가 "어떻게 성령을 받냐"고 물었다. 양 집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고 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왜 사람들이 쓰러지느냐"고 물었다. 양 집사는 "성령님이 임재 하셔서 그렇다"고 대답했다.

첫날 성령집회에는 A도시 전역에서, 둘째 날 집회에는 한 교회 교인들이 참석했다. A도시는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지금도 아픈 사람들이 많다. 알코올 중독이나 마약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많다.

우리가 이곳에 처음 왔을 때 교회 목사님과 성도들이 마음을 잘 열지 않는 것 같은 인상을 받았다. 그런데 성령집회가 시작되고 1시간이 지나자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완전히 열린 것을 알 수 있었다. 성령집회 끝 무렵에 목사님께서 기도 받고 싶은 사람은 나오라고 말씀하셨다. 많은 사람들이 나와 강력한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했다.



'회복시키소서' 를 표어로 유라시아 A국을 다녀온 서대문공동체.

목사님이 기도하자 몇몇 교인들이 비명을 지르고 뒤로 넘어갔다. 우리도 성도들에게 손을 얹고 눈물 흘리면서 뜨겁게 기도했다. 우리가 손을 얹고 기도하자 뒤로 넘어간 사람도 있었다. 그 모습에 우리도 놀랐다.

신갑섭 집사님은 "한국의 성령집회보다 뜨거웠다"고 했고, 김덕현 권사님은 "기도를 해줄 때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상처와 답답함을 느낄 수 있었다. 모르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스스럼없이 안아줄 수 있었다"고 했다.

이번 아웃리치를 통해 우리도 풍성한 은혜를 경험했다. 하나님과의 관계, 정체성, 가족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간증을 들었다. 이 땅을 마음에 품으면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촌공동체

남아시아 H국 아웃리치

도마의 꿈이 나의 꿈이 되기를



강찬옥 성도 (이촌공동체)

난생 처음 해외 아웃리치를 다녀왔다. 국내 아웃리치는 여러 번 갔지만 시간 없다는 핑계로 해외 아웃리치는 미루고 있었는데 선교팀장을 맡게 되어 더 이상 피할 수 없었다.

이번 아웃리치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들이 많아 시작부터 힘이 들었다. 2000선교본부 김홍주 목사님을 비롯해 기라성 같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셨다. 배려해주시고 믿음으로 해결해주셨다.

10주 동안 남아시아 H국 아웃리치를 빈틈없이 준비했다. 그리고 7월 23일 엄청난 짐을 싣고 도마가 선교했던 그 곳으로 향했다.

"내가 그 땅에 가다니…"

격한 감동이 내 심장을 울렸다.

우리가 도착한 이곳은 유일하게 타밀어를 쓰는 곳이다. 남부의 가장 큰 도시이자 텁기로 유명한 지역이다. 도마에 얽힌 일화가 많은 곳이다. AD 72년경 도마가 순교할 당시 남겼던 그의 발자취가 살아 숨 쉬는 곳이다. 130년에 불과한 한국선교 역사와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오랜 기독교 역사를 자랑하는 곳이다.

곳곳에서 재난의 흔적이 발견됐다. 수많은 과부와 집 없는 아이들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다. 힌두교가 지배적인 땅에서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기독교 신앙을 지키고 있는 현지 교회의 영혼들을 보면서 "우리가 제대로 왔구나"하는 생각이 들었다.

건물 틈 사이 비좁은 공간에 교회가 보였다. 그 곳에는 과부들이 모여 있었다. 무더위 속 골방에서 머리가 복잡해졌다. 그들에게 어떻게 접근하고,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고민했다. 서투르지만 타밀어로 찬양하고, 손을 잡고 교제했다. 서로의 마음을 느꼈다. 죄에 대해 고민하는 과부들의 간증을 듣고 그들과 우리는 똑같은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다.

버려진 14명의 아이들이 생활하고 있는 그룹홈을 방문했다. 그곳은 8~16세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아이들이 생활하고 있었다. 우리는 아이들과 웃고 떠들며 교제했다. 서로의 이름을 불러주니 곧장 친해졌다. 마치 천국의 아이들 같았다.

우리 팀은 C교회에서 100여 명의 교인들과 함께 주일예배를 드렸다. 우리 팀은 타밀어로 특별 찬양을 준비했고, 김홍주 목사님이 설교하셨다.

교인들의 뜨거운 찬양과 기도를 잊을 수가 없다.



예배 사역 중 안수기도하는 모습.

40도가 넘는 폭염이 계속됐다. 천장에 달려 있는 선풍기는 떨어질 것만 같았다. 하지만 누구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방해하지 못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 현지청년들과 나눔 시간을 가졌다. 다양한 직업과 경험을 알려주며 청년들에게 직업적 소명의식을 심어주었다. 이곳에서 기독교인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가정마다 겪고 있는 폭력, 질병, 생계의 문제에 대해서도 나눴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다. 나의 첫 해외 아웃리치에서 도마를 만났다. 2000년 전, 도마는 무엇 때문에 복음을 들고 떠났을까. 도마의 마음을 상상하며 마지막 날 밤을 보냈다. 시내 도처에 널린 힌두사원, 그 사이에 보이는 십자가. 그들에게 보이는 천국이 바로 도마의 꿈이었을 것이다. 그 꿈이 나의 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20150809-1060-2_2012528 -90216 15. 8. 7. 6:43 Page 7

남양주 온누리교회

가평 아웃리치

힘차게 흐르는 계곡물처럼



오효수 순장
(별내다락방 2순)

이른 아침 경기도 가평 펜션에 도착했다. 지난 밤 내린 비로 펜션 주변에는 계곡의 시원한 물소리가 가득했다. 가파른 산을 가로질러 쏟아지는 계곡물이 거침없었다.

휴가철 차량과 섞이지 않기 위해 새벽부터 서둘렀다. 동행한 다락방 식구들은 급한 마음을 안정시키기도 전에 각자 맡은 역할을 따라 일사분란하게 움직였다.

아웃리치 한 달 전부터 네 개의 팀으로 나눴다. 예배팀, 교사팀, 주방팀, 시설팀이 각자 역할에 맞춰 기도로 준비했다. 그 덕분에 바쁜 와중에도 차분하게 진행할 수 있었다. 이번 아웃리치는 별내다락방장님과 가평 주예수사랑 교회 이상근 목사님의 인연으로 오게 되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평 주예수사랑 교회는 소외된 노인과 이웃들을 위해 사역하고 있다. 몇 년 동안 주일학교 교사 및 재정이 부족해서 차세대 여름캠프를 열지 못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사연을 전해 듣고 그것을 준비했다.

우리는 물 풍선 게임, 조별활동, 물놀이, 비전코칭 프로그램을 준비해 놓고 목사님이 공부방을 운영하며 돌보고 있는 아이들을 펜션으로 초대했다. 바비큐 파티도 준비했다. 그렇게 40여 명의 아이들과 함께 여름 캠프를 즐겼다.

저녁 식사를 앞두고 이번 캠프의 하이라이트인 '비전코칭'을 진행했다. 학년별로 방에 둘러앉았다.

게임을 할 때에는 장난을 치던 아이들의 모습이 온데간데없었다. 각자 자신의 꿈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열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아이들의 발표시간이었다. 수줍게 말하면서도 자신의 꿈을 분명하게 설명하는 아이들의 모습에 감격했다. 저절로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외쳤다.

어려운 주제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우리가 준비한 만큼 잘 따라올 수 있을까를 염려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비전코칭을 통해 아이들을 꿈의 무대 주인공으로 빛나게 할 수 있었다. 이곳에서 만난 아이들은 태권도 국가대표선수, 바리스타, 요리사, 치과의사, CCM가수 등의 꿈을 꾸고 있었다.



차세대 여름캠프에서 비전 코칭을 하고 있다.

저녁 무렵, 천둥 번개가 내리치고, 소나기가 쏟아졌다. 천막사이로 물이 흘러내리는 가운데 캠프를 진행했다.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불안해하지 않고 자리에 앉아 말씀을 듣는 아이들의 모습이 대견스러웠다.

저녁 예배드리고 아이들을 모두 안전하게 귀가시켰다. 모든 일정을 마치고 다락방 식구들이 한데 모여 소감을 나눴다. 그렇게 길고 길었던 하루를 훈훈하게 마무리 지었다.

이튿날, 70-80대 노인으로 구성된 가평 주예수사랑 교회 성도들이 우리 팀을 점심식사 자리에 초대했다. 얼마나 신이 났던지 식사대접을 받은 우리들이 마치 어린아이가 된 것 같았다. 기분이 무척 좋았다.

어제 밤에 내린 비로 계곡물 흘러가는 소리가 어제보다 더 힘차게 들렸다. 이번 캠프에 참가한 아이들의 꿈도 저 힘차게 흐르는 계곡물처럼 흘러가기를 기도한다.

Pole2공동체

동아시아 A국 아웃리치

그들 안에 복음의 씨앗을 심다



하민수 형제
(Pole2공동체)

이번 아웃리치는 기대보다 걱정이 앞섰다. 처음 가보는 해외 아웃리치인데 팀장까지 맡게 되었기 때문이다. 염려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팀장이라는 자리가 내게 주는 부담감이 무겁게만 느껴졌다.

아웃리치를 준비하는 동안에도 '내가 이 팀을 잘못된 길로 이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 염려 때문인지 모임을 진행하는 와중에도 나는 팀원들에게 초조한 모습을 계속 보여주었다. 내가 불안함과 초조함으로 떨고 있을 때 누군가 내게 호의로 말을 걸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대처해야 해."

"이런 것들은 준비했니?"

분명 나를 도와주려는 말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들리지 않았다. 나를 철저하지 못한 팀장이라고 나무라는 말로 들렸다. 나를 믿지 못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속상하기도 했다. 부족한 경험은 나를 우유부단하게 만들었다. '아웃리치라는 문제의 정답에서 내가 벗어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도 되었다.

그런 마음으로 아웃리치를 준비하다 보니 팀원들은 물론 하나님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팀원들이 나에게 서운해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때 깨달았다. 내가 완벽하고 일을 잘하는 멋진 팀장이 되고 싶어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이다. 나는 그 옷을 벗어 던지고 예배와 기도로 무장하기로 했다. 다시금 팀원들을 돌아보는 자세로 팀 모임을 이끌어가겠다고 다짐했다.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고 계시다는 것이 느껴졌다. 이 팀을 이끄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다.

그동안 교만에 빠져 '팀을 이끄는 것은 팀장'이라고 생각해왔던 내 모습을 회개했다. 하나님이 내 모습을 조명해주셨다. 그때부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갔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웃리치팀이 어떤 모습인지를 깨달았다.

하나님의 사랑에 흠뻑 젖다

나의 교만이 완전하게 깨진 것은 A국에 도착해서였다. 동아시아 A국 땅에 발을 내딛는 순간 내가 걱정하던 모든 것들이 사라졌다. 그뿐만이 아니다. 아름다운 하늘과 초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는 모두 처음이었고 초보였다. 우리가 행위와 노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하며, 사랑할 수밖에 없었다.



Pole2 공동체와 아이들이 함께 웃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을 찬양했다. 그곳에서 만난 동아시아 A국 아이들을 위해 기도했다. 그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공급해주시는 사랑에 흠뻑 젖었다.

아웃리치 준비 모임 때마다 중점적으로 기도한대로 우리는 그들을 뜨겁게 사랑 할 수 있었다. A국 아이들은 하나같이 순수하고 사랑을 갈급해 하고 있었다. 우리는 그 아이들을 안아주었다. 그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랐다.

어린이 사역 마지막 날이 다가왔다. 함께 예배드리고 있었는데 아이들이 울면서 통성기도하고, 할렐루야를 외쳤다. 아멘을 부르짖었다.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였다. 그들 안에 복음의 씨앗을 심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앞으로 다시 만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서로를 위해 기도할 것이다. 이렇게 좋은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를 지키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20150809-1060-2_2012528 -90216 15. 8. 7. 6:43 Page 8

영등포구로공동체

유라시아 A국 아웃리치

눈으로 담고, 가슴에 품다



김성호 성도

우여곡절 끝에 영등포구로공동체 아웃리치 행선지가 유라시아 A국으로 결정됐다. 고려인 디아스포라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 세 군데를 방문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선교사님이 운영하고 있는 현지 신학교와 개척 교회 방문, 땅 밟기를 주요 사역으로 정했다.

우리 팀 11명은 약 5주 동안의 기도회를 통해 아웃리치를 준비했다. 역할도 분담했다. 현지어 찬양연습, 기증품 마련도 빼놓지 않았다. 익숙하지 않은 현지어 찬양을 수십 번 듣고 연습했다. 고려인 형제자매를 초청해 도움도 받았다. 공동체 지체들을 통해 컴퓨터, 이불 등의 기증품도 모았다. 우리 팀이 가는 지역에는 고려인뿐만 아니라 북한 근로자들도 있다고 들었다. 그래서일까. 그곳에 사는 동포들에 대한 측은함이 생겼다.

드디어 유라시아 A국에 도착했다. 이곳 공항은 국제공항이라기보다 시골 공항 같은 한적한 분위기였다. 선교사님과 합류해 목적지로 향했다. 한국과 다른 풍경을 보며 감상에 빠졌다. 유라시아 A국의 광활한 땅을 볼 때는 부러운 마음이, 현지어로 된 간판들을 읽을 수 없을 때에는 무기력한 생각이 들었다.

우리 팀은 짧은 일정 속에서도 여러 시설과 기관을 방문했다. 도착한 첫날은 현지 신학교에 들러 선교사님으로부터 유라시아 A국의 역사와 선교 현황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주일인 다음날부터 강행군이 시작됐다. 선교사님이 개척한 두 군데 교회 주일예배에 차례로 참석했다. 현지인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교제했다. 우리가 준비해간 현지어 찬양도 불렀다. 두 교회를 방문하고 나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다. 지역은 다르지만 두 교회 분위기가 닮았다는 점이었다. 한 가족 같은 동질감이었다.

성도들 앞에서 성경을 읽는 현지인 할머니와 고려인 청년들의 뜨거운 찬양이 인상 깊었다. 현지어로 번역된 일대일 교재에 빼곡히 적어놓은 글귀들도 눈에 들어왔다. 열심히 공부한 흔적들이었다. 두 교회가 말씀 위에 바로 선 교회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새로이 교회 건물을 짓고 있는 현장도 방문했다. 교인이 20명에서 50명 가까이 늘어 교회를 확장해야만 하는 곳이었다. 마침 한국 교회에서 후원을 해줘서 공사를 무사히 마무리하고 8월 9일(오늘) 헌당예배를 드린다고 했다.

도시가 한눈에 들어오는 전망대에 올라 그 땅을 눈과 마음에 가득 담아 보기도 하고, 독립운동 유적지를 찾아 조국과 한국 교회의 발전상에 대해 다시 한 번 묵상하기도 했다. 현지 대학을 땅밟기 하며 복음화를 위해 기도했다. 고려인들이 많이 사는 마을을 방문해 조국으로부터 보살핌을 받지 못한 이들의 현실과 마주할 때는 가슴이 먹먹해지기도 했다. 정에 굶주린 고려인들에게 여러 이단들이 들어와 포섭하고 있다는 현실도 목도해야만 했다. 북한과 가까운 지역이라 북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북한선교를 포기할 수 없다는 선교사님의 일편단심 북한 사랑에 감동받았다. 그간 힘들고 외로우셨을 선교사님이 우리의 방문이 위로와 격려가 되었다고 하셔서 감사하고 기뻤다.



고려인 문화회관 앞에서.

나는 이번 아웃리치를 통해서 유라시아 A국을 사랑하게 되었다. 비단 나뿐만이 아니라 함께 간 팀원들 모두의 마음이 동일했다. 선교에 대한 비전을 다시 점검하고, 마음가짐이 변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일회성 방문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기도모임을 갖고, 선교사님을 후원하기로 마음을 모았다. 현지어 찬양 연습, 헌금 모금, 기증품 수집, 입출국 수속 준비, 식사 등 궂은일들을 마다않고 신실하게 섬겨준 팀원들과 선교사님 내외분께 감사드린다. 좋으신 우리 주님이 더 좋은 것으로 그들에게 갚아주시기를 기도한다.

갈렙공동체

남아시아 F국 아웃리치

하나님의 섭리에 놀라고 감탄했다



서윤경 자매 (갈렙공동체)

'Beyond the Limited!' (한계를 넘어). 아웃리치를 준비하는 내내 마음속에 품고 있던 문장이다. 일정, 재정, 관계 등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만 바라보자는 결심이었다.

갈렙공동체는 남아시아 F국으로 아웃리치를 다녀왔다. 남아시아 F국은 공산국가다. 공산국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염려 때문인지 아웃리치를 준비하면서 다양한 영적 공격을 받았다. 팀으로서도, 개인적으로도 마음이 무거울 수밖에 없었다.

보이지 않는 두려움에 휘둘릴 때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되뇌며 한계에 굴복하지 않으려고 다짐하고 또 했다.

우리 팀은 모두 10명이었다. 남아시아 F국에서 우리팀의 주요 사역은 전도였다. 직접적으로 전도할 수 없는 국가인지라 관계전도로 눈을 돌렸다. 아웃리치 출발 한 달 전부터 현지 선교사님께 전도 대상자 명단을 미리 받아 친분을 쌓았다. 그들을 위한 기도도 빠뜨리지 않았다.

드디어 그들을 만나러 갔다. 그곳에서 만난 영혼들은 순수함 그 자체였다. 한국 기업의 세계 진출은 비단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이곳 남아시아 F국에도 마찬가지다. 한국 기업과 한류 붐이 거세게 불고 있었다. 한국어 구사 능력이 뛰어날수록 더 나은 직장에 취직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런데 그곳의 아이들은 돈보다 행복하게 사는 것에 초점을 두고 구직을 준비하고 있었다. 우리가 만난 한 아이는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는 마음인 것 같다"고 말했다. 삶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면서도 긍휼한 마음을 잃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고 반성하지 않을 수 없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의식주가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하나님 한 분만 필요하다"는 표현이 마음 깊이 와 닿았다.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믿지 않는 그들보다 세상 것을 좇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회개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이번 아웃리치를 통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특별한 선물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은사를 깨달았다. 관계전도를 통해 그곳 친구들을 만나는 동안 나에게 친화력과 통찰력의 은사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특유의 친화력으로 스무 명 남짓 되는 아이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친해질 수 있었다. 그들에게 대화를 시도하고, 격려하는 일은 아웃리치 내내 나만의 특별한 역할처럼 다가올 정도였다. 또한 통찰력을 통해 내가 만난 한 사람 한 사람의 성향과 특성을 파악할 수 있었다. 어떤 것을 원하는지, 어떤 말을 듣고 싶어 하는지를 알아야 좋은 관계를 맺고 대화를 할 수 있는데 내가 가진 통찰력 덕분에 그 친구들과 소통할 수 있었다.



남아시아 F국 청년들과 함께.

이번 아웃리치는 하나님이 우리 팀원들 모두가 자신의 은사를 만나는 시간이었다. 형태와 모양이 다른 은사들을 하나의 마음으로 조화시키는 하나님의 섭리에 놀라고 감탄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팀원들을 바라보았다. 같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각자에게 부어주신 은혜의 깊이와 정도, 은사의 다양성이 팀을 하나로 만드는데 큰 역할을 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직장, 가정, 학교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때 각자의 특별함과 남다름을 이해하고 포용해야 한다는 것도 깨달았다.

20150809-1060-2_2012528 -90216 15. 8. 7. 6:43 Page 9

재미있는 선교지 이야기



베트남의 명절 '뗏'





은 전도사 가족
(온누리M센터 베트남예배)

베트남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명절은 아무래도 설날이 아닐까 싶다. 베트남의 설날은 '뗏' 이라고 부른다. 예전에는 마을에서 설 축제를 열었다고 한다. 그런데 구전만 있지 설 축제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없다. 베트남의 설 축제는 중국의 영향을 받아 시작되었다고 한다. 그 이유 때문인지 베트남의 설 연휴는 중국의 설 연휴와 날짜가 같다. 과거에는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지만 지금은 베트남만의 고유한 축제가 자리 잡았다. 베트남의 설 연휴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모든 세대가 함께 모여 덕담을 나누고 복을 기원하는 날이다.

용서하고, 축복하고, 차별 없는 복된 날

베트남의 설날 풍경

베트남의 설날 '뗏' 은 열심히 일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휴일이다. 베트남 사람들은 설날이 되면 이를 기념하기 위해 모인다. 한국처럼 멀리서 가족들이 찾아온다. 가족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고, 복을 나눈다. 특히 이날은 서로 잘못한 일들을 용서하고, 나쁜 일은 모두 잊고, 조상을 추모하는 시간을 갖기도 한다. 가족들이 함께 다가올 새해에 대한 소망을 빌면서 담소를 나눈다.

베트남의 설날 '뗏' 에 빠지지 않는 것들이 있다. 식탁에 반드시 차려져야 하는 다섯 가지 과일이 바로 그것이다. 사과, 코코넛, 파파야, 망고 등의 다섯 가지 종류의 과일과 음식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같이 준비해야 한다.

이 과일들에는 특별한 뜻이 숨어 있다. 사과는 '묶다' 라는 뜻이 담겨있다. 무화과는 '번창' , 파파야는 '충분하다' , 망고는 '보내다' 는 뜻이 있다. 살구꽃은 '행운' , 수박은 '빨갛다' 는 뜻이다. 모두 좋은 뜻을 가진 과일들이다. 베트남에서는 의미에 따라 과일을 선물하기도 한다. 베트남에 가서 과일을 사 먹어볼 일이 있다면 뜻을 알아두는 것이 좋다.

베트남 사람들은 설 연휴에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가족들을 만난다. 가족들이 오랜만에 모여 행복한 시간을 보낸다.

베트남의 설날 '뗏' 에는 여성들만 힘들게 일하지 않는다. 베트남에서는 남녀차별 없이 모두가 함께 음식을 준비한다.

새해선물도 준비해야 한다. 서로 작은 정성을 담아 함께 설을 기념하는 것이다. 조부모님 댁과 부모님 댁을 방문해 새해선물과 축복의 메시지를 전한다. 한국처럼 손자손녀들이 조부모에게 세배를 하고 세뱃돈을 받는다.



베트남의 설날 뗏의 풍경(위).
뗏에 먹는 다섯 가지 과일(아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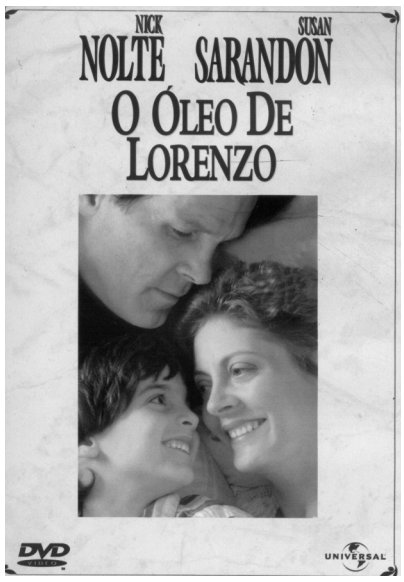
이날 베트남 사람들은 덕담을 나누고 복을 기원한다. 한 해 동안 서로에게 잘못한 일이 있다면 이날만큼은 용서를 구해야 한다. 사과와 용서가 끝나면 새 날에 좋은 일과 복이 있기를 기원해준다. 가족 모두가 함께 즐기는 명절인 만큼 그 어떠한 형태의 남녀차별도 찾아볼 수 없다.

베트남 사람들도 '효' 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자녀들은 부모와 조부모에게 무조건 순종해야 한다. 평소 순종하지 못했거나 효도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자녀들도 '뗏' 에는 부모님과 조부모님께 존경을 표하고, 마음에 담은 말을 전한다.



✎ 목회칼럼 이재원 목사(양재 차세대)

교회 일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



영화 '로렌조 오일'

만 원의 가치는 얼마일까. 어떤 이는 만 원은 만 원 일 뿐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만 원으로 서울에서는 지하철을 8번 탈 수 있다(서울 지하철 기본요금은 1,250원이다). 그런데 런던에서는 지하철을 딱 한 번 밖에 탈 수 없다. 종이에 적힌 숫자는 똑같은데 가치가 다르다. 만 원은 어떤 상황에서 사용하느냐에 따라 가치가 달라진다.

노력의 가치는 어떻게 매길 수 있을까.

영화 '로렌조 오일' 은 불치병에 걸린 아들(로렌조)과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한 부모의 노력을 그린 영화다.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작품이다. 로렌조의 병명은 이름도 낯선 '부신백질이영양증(ALD)' 이다.

몸에서 생성되는 지방산 물질이 뇌로 들어가 신경세포를 파괴하고, 심한 감정기복을 보이는 증상이 나타난다. 이 병이 진행되면 시력과 청력을 잃는다. 발병 후 2년 내에 결국 사망하게 되는 무서운 병이다.

영화에서 부모는 아이의 치료를 의뢰하지만 대부분의 의사들이 거부한다. 연구재원 부족과 연구자료 부족(적은 환자 수)이 그 이유다. 결국 로렌조의 부모는 아이의 병을 직접 연구하기 시작한다. 직장까지 그만두고 도서관과 연구소를 오간다. 세계 각국에서 발표된 논문들과 의학전문가들이 볼법한 의학서적들을 연구한다. 하지만 그들이 기대한 만큼의 성과는 나오지 않았다. 한 발짝 전진했다 싶으면 다시 뒷걸음질 치는 상황이 계속 벌어졌다. 그들의 어려움은 계속될 때 로렌조의 아버지가 아내에게 이렇게 말한다.

"여보, 어쩌면 지금 우리가 하는 이 연구는 로렌조를 위한 것이 아닐지도 몰라."

아들을 살리기 위한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도 끝이 보이지 않는 절망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들의 불치병을 치료하기 위해 최소한의 전진을 계속한다.

교회 일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일의 가치에 대해 의문을 품는 경우가 있다.

"2박3일 동안의 여름캠프로 아이가 변하기나 할까?"

"이번에 보면 몇 년, 아니 평생을 못 볼 수도 있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공을 들여 아웃리치를 준비할 필요가 있나?"

이 시대는 노력의 가치를 눈에 보이는 결과로 가늠한다. 결과는 효율과 속도로 판가름 난다. 영화 한 편을 수초 내에 다운로드할 수 있는 시대다. 역사상 리더십에 관련된 책이 가장 많이 출판되는 시대다. 그만큼 효율성과 눈에 보이는 결과가 노력의 가치를 가늠해주는 것처럼 보이는 시대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다르다. 하나님 나라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 중요하다. 효율이 아니라 성실함이 더 강조된다.

교회 일을 하는 사람은 농부와 같다. 풍성한 열매가 맺히길 기대하며 씨를 뿌리는 사람들이다. 앞으로의 기상 상황과 씨가 갖고 있는 성장성에 대해 미리 알 수 없지만 그 씨가 자라 맺을 열매를 바라본다. 그 열매를 나눠먹을 기쁨을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 따라 자신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당장의 가시적인 성과가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지금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한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교회 일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다.

오랜 연구 끝에 로렌조의 부모는 아들의 신경세포를 망치는 지방산을 분해하는 방법을 찾아낸다. 지방산 분해 성분이 있는 식용기름을 섭취함으로 로렌조의 증상은 현저히 개선되었다. 그들의 아들은 2년이 아닌 25년을 더 살게 되었다. 이 식용기름은 훗날 '로렌조오일' 로 명명되었다.

"눈물로 씨 뿌리는 사람들은 기뻐하며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귀한 씨를 들고 울며 나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기뻐하며 단을 거두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시 126:5-6).

20150809-1060-2_2012528 -90216 15. 8. 7. 6:43 Page 10



CGNTV와 홍콩 창세TV 업무 협약식.

이제는 중화권 선교다

'홍콩 CGN World'설립, 중화권 선교시대 활짝

이제는 중화권 선교다. CGNTV와 국제개발 NGO 더멋진세상이 손잡고 '홍콩 CGN World'를 설립하고 중화권 선교를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 대만, 홍콩을 비롯한 중화권 선교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CGNTV와 NGO 더멋진세상이 함께 '홍콩 CGN World'를 설립했다는 것이 의미가 크다. 방송선교와 구호사역을 통한 중화권 선교 시대가 활짝 열렸기 때문이다.

지난 8월 5일 홍콩 아이콘 호텔에서 '홍콩 CGN World 설립 감사예배'에 참석한 홍콩 현지 교계 지도자와 이재훈 담임목사, CGNTV 대표이사 유재건 장로, NGO 더멋진세상을 섬기고 있는 김광동 장로(홍콩 총영사)등 한국측 인사 200여 명도 기대감을 내비쳤다.

한편 CGNTV는 8월 6일 홍콩 창세TV와 업무 협약을 맺고 콘텐츠 교류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창세TV는 홍콩의 미디어 기업 영음사단이 2003년 설립한 방송국이다. 24시간 위성과 인터넷 방송을 송출하고 있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프로그램 교환, 행사 협력, 양국 크리스천 연예인들의 교류의 장을 만들기로 했다. 프로그램 공동 제작도 할 계획이다.

/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M센터에서 열린 '구원 캠프'

다문화가정 자녀 위한 영어캠프 성황리 마쳐

온누리M센터에서 '2015 여름 영어캠프'가 열렸다. 영어캠프는 지난달 24일부터 26일까지 2박3일 동안 스타트리 아카데미 주관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영어캠프에는 다문화가정 어린이와 청소년 45명을 포함해 Point5 공동체, 차세대 교사, 봉사자 등 총 9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영어캠프에 양재 온누리교회 Point5공동체가 참가해 뜻 깊었다. Point5공동체는 1.5세와 유학생 등으로 구성된 공동체다. Point5공동체 지체들은 자신들과 처지가 비슷한 다문화가정 자녀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서로를 보듬어주었다.

정재륜 목사(Point5공동체)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에게 힘을 북돋워주는 메시지를 전했다. 정 목사는 "지금 힘들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거룩하게 준비되어야 한다"고 권면했다.

이경숙 전도사(온누리M센터)는 "이번 영어캠프는 믿지 않던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난 구원캠프였다"고 평가했다.

이번 영어캠프를 주관한 스타트리 아카데미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교육과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2011년 세워진 M센터 소속 방과 후 학원이다. 한국어뿐 아니라 영어, 합창, 피아노, 기타 등의 수업으로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 정지은 기자 jji@onnuri.org



M센터에서 다문화가정 어린이들을 초청해 영어캠프를 열었다.

서빙고 상담실 레지던트 상담사 모집

8월 23일까지 … 1년 과정, 회비 학기당 30만원

서빙고 온누리교회 상담실에서 레지던트 상담사를 모집한다. 자격은 온누리교회 등록교인으로 상담 관련분야 석사 졸업생 이상(임상경험 100시간 이상)이다.

레지던트 상담사로 선발되면 일주일에 하루 서빙고 상담실 자원봉사, 상담실에서 제공하는 교육 참석, 개인 및 집단 슈퍼비전을 받게 된다. 교육과정은 1년이고, 회비 학기당 30만원이다.

교육과정을 마치면 온누리교회 상담사 자격이 부여되고, 상담관련 보수교육이 제공된다. 슈퍼비전도 제공된다.

서빙고 상담실 레지던트 상담사 모집에 참가를 원하는 성도는 이력서, 자기소개서, 공동체 교역자 추천서를 8월 23일까지 서빙고 상담실에 방문(선교관 지하 1층) 접수하면 된다. 이메일(eml7322@hanmail.net)로도 접수 가능하다. 문의: 010-6312-6407

국악 찬양팀 단원모집

8월 30일까지 참가신청

국악 찬양팀에서 팀원을 모집한다. 8월30일까지 참가신청을 받는다. 모집분야는 사물놀이, 한국무용, 가야금이다. 20~40대까지 남녀 제한이 없다. 신청방법은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전공자의 경우 객원 연주자로 봉사할 수 있다.

전공자가 아니어도 사물놀이 경험자, 고전·현대무용 경험자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국악 찬양팀 예울림은 1999년 여호수아공동체에서 시작됐다.

최근에는 '베트남 다문화가정을 위한 행복드림 콘서트'와 '의료선교부 아웃리치 발대식'에서 공연했다. 지금까지 국내외 100여 곳이 넘는 지역으로 아웃리치를 다니며 국악찬양을 통해 전도하고 있다. 15명이 활동하고 있다.

문의: 신현희 010-6281-9121

/ 김미림 기자 mirim@onnuri.org

온누리 전도학교 수강생 모집

온누리 전도학교에서 수강생을 모집한다. 9월 13일부터 11월 22일까지 매주 주일 오전 8시 50분에서 10시 10분까지 서빙고 홍보관에서 진행된다. 강사는 박철웅 목사, 장경문 장로, 박인숙 권사 등이다. 참가신청은 아이스쿨이나 주일 서빙고 홍보관 앞에서 접수하면 된다. 회비는 4만원이다.

문의: 문쌍찬 팀장 010-4572-7373

은빛날개세미나 참가자 모집

은빛날개 세미나 참가자를 모집한다. 은빛날개 세미나는 9월 5일부터 25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서빙고 온누리교회 홍보관에서 열린다.

30대 이상 남녀 2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참가신청은 아이스쿨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1만원(교재, 간식비 포함).

문의: 02-3215-3436

조기훈 총무 010-5336-5820

온누리교회 전임교역자 청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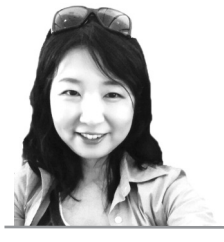
온누리교회 전임교역자를 청빙한다. 모집부서는 성인공동체, 대학청년부, 차세대다. 자격은 만 40세 미만 남자로, 정규 대학 및 신학대학원 졸업한자여야 한다. 목회의 소명과 인격을 구비한 교역자여야 한다. 구체적인 제출서류와 방법은 다음과 같다.

〈제출서류〉

1.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본 교회 양식, 서명 필)
2. 목회자 추천서 2인 총 2부(본 교회 양식, 서명 필)
3. 최근 설교 동영상 1편(USB 또는 이메일 제출 onnurihr@gmail.com)
4. 설교 원고 1부
5. 대학 졸업증명서 원본 1부
6. 신대원 졸업증명서 원본 1부
7. 주민등록등본 원본 1부
8. 제출 방법: 우편 및 방문 접수(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9. 해외거주자: 이메일로 서류 제출 후, 차후 원본 제출 (onnurihr@gmail.com)
10. 제출처: (04428)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347-11 온누리교회 본관 1층 목회지원실
11. 문의: 02-3215-3233, 010-5295-6536
12. 제출기한: 2015년 8월 15일(토) 오후 3시까지

20150809-1060-2_2012528 -90216 15. 8. 7. 6:43 Page 11

▪ 강동 온누리교회 '예꿈 캠프' 간증



아이와 나의 차이점

/ 원유경 성도

2박3일 동안의 여름캠프는 비로 시작해 비로 끝났다. 아이와 함께 가는 첫 캠프였기에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결국 비가 내렸다. 지금까지 어떤 행사가 있을 때 간절히 기도하면 쾌적한 날씨를 주셨는데 이번에는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비가 그치지 않았다. 속상했다. 줄기차게 내리는 비를 보면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께 화가 났다. 쏟아지는 빗속에서 아이 둘을 돌봐야 한다는 걱정에 불평불만이 차올랐다. 밥 먹으러 가는 길도, 예배드리러 가는 길도 질척거리고 힘들었다. 습기가 가득 찬 숙소, 신발에 묻은 진흙은 나를 더 힘들게 만들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와 나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나는 왜 하필 캠프 때 비가 오는지 몰라 불편해하고 있는데 아이는 비가 오든 말든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있었다. 날씨에 상관없이 기뻐하고 있었다. 나는 비 오는 것이 불편한데 아이는 왜 불편해하지 않는지 그 이유를 곱씹었다. 한참을 고민하던 나는 조금씩 그 이유를 알 수 있었다. 이유는 단순했다. 아이는 지금 상황을 재밌어했다. 부모와 함께 낯선 곳에 놀러 와서 기뻐했다. 친구들과 함께 밥 먹는 것도 즐거워했다. 바람에 날려 살갗에 부딪히는 빗방울도 재미있었던 거다. 신발이 진흙투성이가 되었지만 식당으로 달려가는 것이 그저 즐거웠던 거다. 예배를 드리고, 친구들과 뛰어 놀 생각을 하니 가는 길이 마냥 즐거웠던 거다. 아이에게 비는 불편한 요소가 아니라 기쁨의 자극제였던 것이다.

이 사실을 깨닫고 한없이 부끄러웠다. 내가 본질을 잊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되었다. 주님의 자녀가 된 것을 진심으로 기뻐하며 살고 있는지, 주님이 허락하신 양식을 기뻐하며 먹고 있는지, 습관처럼 드리는 주일예배를 즐거워하고 있는지, 가족과 함께 한다는 것만으로도 기뻐하고 있는지를 생각해봤다. 아이를 통해 내가 무엇을 잊고 있었는지를 깨달았다.

캠프 프로그램 중에 여리고성을 쌓아놓고 실제로 일곱 바퀴를 도는 순서가 있었다. 결론을 알고 있어 시큰둥했던 나와 달리 아이의 표정이 진지했다. 아이는 순진한 표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일곱 바퀴를 돌았다. 나도 아이와 함께 여리고성을 돌아야만 했다. 그러면서 나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기쁨의 함성을 지르는 부분에서는 나도 아이처럼 진심으로 기뻐했다. 내 안에 기쁨이 가득해졌다. 그 순간 살면서 하나님께 기쁨의 함성을 지른 적이 있었는지를 돌아보고 회개했다. 눈치보고, 체면 차리느라 기쁨의 함성을 제대로 지르지 못한 내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아이를 통해 벅찬 마음을 깨닫게 해주셨다. 나는 이제부터 기쁨의 함성을 지를 것이다. 나를 승리로 이끄시는 주님을 향해 기쁨의 함성을 내지를 것이다.

▪ 대전 이혼자 행복학교 수료 간증



참석자들의 회복이 눈에 보였다

/ 나지원 성도(이혼자 행복학교 총무)

3년 전 한 사회복지사로부터 대전에서 이혼자 행복학교를 열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 당시에는 서울을 떠나 지방에서 섬기는 것을 상상 할 수 없었다. 우리 팀 스스로가 부족하고, 여력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올해 초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대전으로 부르셨다. 이혼자 행복학교 담당 손정훈 목사님과 대전 온누리교회 담당 박태영 목사님께서 대전에서 이혼자 행복학교를 열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

대전 이혼자 행복학교는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 3일 동안 열렸다. 30명의 스태프들은 휴가를 반납하고 헌신했다.

6월 말부터 대전 이혼자 행복학교를 위한 중보기도를 시작했다. 우리가 만나게 될 성도들을 위해 기도했다. 30명의 스태프들이 하나님의 정예부대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무엇보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했다. 팀원들 모두가 영적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전신갑주로 무장했고, 하나님께 뜻을 이루겠다고 기도했다.

중보기도는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에 계속 이어졌다. 이혼자 행복학교 스태프들은 정기예배가 끝나면 중보기도 모임을 하는데 매번 참석율이 90%가 넘는다. 그만큼 기도를 많이 하는 팀이다.

스태프들은 승합차 1대와 개인 승용차 5대에 나눠 타고 대전으로 향했다. 과연 몇 명이나 올까. 〈생명의 삶〉, 대전 극동방송, 대전 온누리교회 예배에서 광고했다. 18명이 참석했다. 첫날, 손정훈 목사님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를 주제로 강의했다. 둘째 날은 온누리 회복사역 담당 천정우 전도사님이 '자아상 회복' 을 주제로 강의했다. 셋째 날에는 이종문 원장(한국정서상담연구원 원장)이 역할극을 통해 내면에 감춰진 감정들을 직면하는 방법을 가르쳐줬다.

대전 이혼자 행복학교는 3일 이어졌다. 3일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얼마나 회복되었을까. 참석자들의 회복 과정이 눈에 보였다. 섬기는 스태프들도 은혜를 받았다. 성령님이 이미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셨다. 대전 온누리교회 비전홀은 은혜와 기쁨의 눈물로 가득했다.

하나님은 환난 속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셨다. 섬기는 사람이나 참석한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다. 스태프들이 서로 배려하고, 행동하는 모습이 무척 보기 좋았다. 간증들도 넘쳐났다.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행하신 일들을 돌아보니 목이 메었다. 대전 이혼자 행복학교를 섬기려고 시작했는데 받은 은혜가 더 크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경험한 소중한 시간이었다.

▪ 세례간증



이제 그 빛을 갚기 위해

/ 심정숙 성도

중학생 때 친구를 따라 교회에 처음 갔다. 미션스쿨인 고등학교에 다니면서 일주일에 한번씩 학과 과목으로 성경을 배웠다. 나와 교회의 인연은 그것이 전부였다.

삼위일체 하나님도, 나의 죄를 대신해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것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남의 나라 역사를 왜 공부하고 믿어야하는지 반발했다. 기독교는 나와 무관한 종교라고 생각했다.

3년 전 믿음생활을 하던 큰언니가 갑작스럽게 폐암말기라는 선고를 받았다. 언니는 암과 사투를 벌이면서도 나에게 주겠다며 낡은 성경책을 테이프로 붙이고 있었다. 언니가 의식이 있을 때 물어보았다.

"언니가 믿는 하나님이 언니한테 해준 게 뭐야?"

언니는 경제적 여유 말고는 모든 것을 다 받았다고 했다. 그런데 왜 그리 일찍 병을 얻었냐고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했다.

"딸아 그만 힘들고 천국으로 오거라"

그렇게 언니는 천국에 갔다. 언니의 믿음이 궁금해 동네교회를 찾았다. 아무런 준비 없이 예배를 드리던 내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왜 우는지 이유를 몰랐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회개의 눈물이었던 것 같다.

나의 믿음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고, 믿고 죽으면 천국 간다는 것이 전부였다. 교회 등록도, 성도간의 교제도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내 생각대로 몇 개월 동안 교회를 다녔다. 차츰 예배에 늦고, 졸기도 했다. 무덤덤해졌고 가짜 크리스천이 되어갔다.

그러던 중 친정어머니가 소천 하셨다. 그 일을 계기로 올케와 믿음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지 못한다는 나의 말에 올케는 온누리교회에 가보라고 했다.

일대일 제자양육과 성경공부를 하면서 나의 마음이 변했다. 성경 목차도 찾지 못하던 내가 양육자와의 만남이 늘어갈수록 믿음이 깊어졌다. 회개의 눈물과 감사의 눈물이 더해졌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 라는 찬송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늘 감사하다. 타인을 탓하고, 신경질적인 반응을 하던 내가 변화되었다. 먼저 머리를 숙이는 크리스천이 되어가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이 느껴진다. 큐티를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것이다. 내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 끊임없이 중보기도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린다. 나도 이제 중보기도 빚을 갚기 위해 기도하는 자리에 있을 것이다.

▪ 창조과학선교팀 아웃리치 후기



천국 잔칫집 같은 분위기

/ 이병일 집사(온누리창조과학선교팀)

아웃리치는 교회사역의 꽃이다. 하나님의 꿈이 펼쳐지는 장(場)인 것 같다. 창조과학선교팀도 지난 7월 25일 여주 산촌교회로 아웃리치를 다녀왔다. 어린이 창조과학 캠프를 진행하기 위해서였다.

우리가 방문했던 여주 산촌교회는 보통 교회와 달리 전원주택이었다. 기와지붕과 천연석이 조화를 이룬 멋진 교회였다.

여주 산촌교회 성도들과 창조과학선교팀원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아웃리치 일정을 시작했다. 우리가 진행할 캠프 장소를 청소하고 다른 사역들도 준비했다.

산촌교회 목사님과 사모님은 어린이 사역에 집중하고 있었다.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을 쏟아 붓고 있었다. 교통이 불편해 어린이 사역을 위한 차량이 공급되기를 기도하고 있다.

사실 창조과학선교팀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산촌교회를 방문했다.

이번 아웃리치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이곳으로 보내신 특별한 이유를 느낄 수 있었다.

캠프에 온 아이들이 천국 잔칫집 같은 분위기를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먹거리와 놀이를 준비했다.

캠프에 참가한 아이들은 시원한 팥빙수와 맛있는 솜사탕을 먹고, 페이스페인팅, 공 던져 넣기, 화살 던지기 등을 즐겼다. 각 프로그램마다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었다.

개회예배를 드리고, 인형극 '나의 사랑하는 책-The Bible' 을 주님께 올려 드렸다.

캠프에서는 '천지만물의 진짜 역사-성경' 을 주제로 강의와 활동(7C 팝업카드 만들기)이 진행되었다.

복습게임을 할 때 아이들이 놀라운 집중력을 보여주었다. 첫 시간에 배운 내용들을 재확인했다. '손바닥 위에서 타는 불' 도 이날 캠프의 백미였다.

'창세기 대사건, 대홍수(맛뵐)' 의 증거와 '칼레이도 사이클 만들기' 로 노아의 대홍수 전과 후의 엄청난 변화들을 살펴봤다.

아이들이 말씀을 따라 꿈을 꾸고, 자라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천지를 덮을 것이다. 어린이 창조과학 캠프를 은혜롭게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20150809-1060-2_2012528 -90216 15. 8. 7. 6:43 Page 12



✎ 장로칼럼 김재일 장로(일본어예배부)

일본선교는 꾸준히 인내하는 과정

안식년을 맞아 4개월 동안 일본 교토대학을 방문했다. 내가 교토에 거주하는 동안 마침 '러브소나타 교토' 집회가 열렸다. 나는 교토대학 직원을 초청해 러브소나타에 함께 참석했다. 교토 온누리교회 목사님이 인도하는 전도집회에서 간증을 하는 기회도 얻었다. 사모님이 인도하는 교토대학 기도모임, 리츠메이칸대학 교수가 주관하는 영어성경공부 모임에도 참석했다. 교토 온누리교회 성도들과 신앙체험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교토에만 머무르지 않고 시간을 내서 우에다 온누리교회도 방문했다. 하용조 목사님이 쓰시던 방에서 숙박하는 등 소소한 기쁨도 누렸다.

나는 이번에 교토에 와서 일본이 사찰과 신사(神社)의 나라라는 것을 절실히 실감했다. 내 연구실이 있는 요시다 캠퍼스 뒷산에는 '요시다 신사'가 있다. 요시다 캠퍼스 뒷산 곳곳에 크고 작은 신사들이 많다. 교토대학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은각사를 기점으로 '철학의 길'을 따라 내려가다 보면 수많은 절들이 있다. 일본인들은 수많은 신사와 절에 와서 복을 기원한다. 물과 인연을 주관하는 신을 모시는 '키부네신사'에서는 결혼을, 학문의 신을 모신 '기타노텐만구신사'에서는 합격을, 쌀의 신을 모신 '후시미이나리신사'에서는 풍년과 상업의 번영을 기원한다. 시주하고, 두 손 모아 소원을 비는 모습을 흔하게 목격할 수 있다.

교토에서는 7월 한 달 동안 일본 3대 마츠리(축제) 중 하나인 '기온마츠리'가 거행된다. 역병의 신에 대한 제사를 지내는 마츠리다. 메인 행사가 있었던 7월 17일에는 태풍으로 인해 행사가 취소될지도 모른다는 예측이 있었다. 하지만 몰아치는 비바람 속에서도 일본인들은 미코시(가마)에 비닐을 씌워 행사를 진행했다. 일본인들의 의식 속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신심(信心)이 얼마나 깊고, 보편적인 것인지를 실감했다.

신앙의 대상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다. 전국적으로 퍼져있는 신사와 사찰, 풍습들은 일본인 특유의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그렇기에 일본 선교는 일본인과 일본 문화에 대한 이해에 기초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한 크리스천 일본인 교수와 대화를 하던 중에 한국에서 효과적으로 시도되고 있는 '사영리 전도'가 일본인들에게는 효과가 낮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일본인들은 남에게 폐 안 끼치고,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한다. 그런 사람들에게 죄인이라는 지적은 수용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물론 개중에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그들도 논리적으로 받아들인 것이지 가슴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 출석으로 연결되는 확률이 낮은 것이라고 했다.

신사와 사찰로 둘러싸인 일본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에 출석한다는 것은 공동체에서 벗어나 소외되는 삶을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큰 결단이 필요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를 통해 복음의 씨앗을 뿌린 일본인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대상자와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어야 한다.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전도자의 삶을 통해 확신시키는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일본 선교는 일본인의 눈에 씌워진 오랜 문화적 관습이라는 비늘을 벗기기 위해서 꾸준히 인내해야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달았다.



✎ 권사칼럼 김정란 권사(서초D공동체)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는 방법

전라남도 완도에서 배를 타고 30여 분 들어가면 외딴섬 '사후도'가 나온다. 차도 사람도 구경할 수 없는 시골이다. 나는 그곳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을 보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작은오빠가 군산에 취직하면서 나도 전학을 가게 됐다.

엄마 품을 떠나 객지 생활 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어느 날 친구를 따라 간 교회가 객지 생활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 중학생이 되며 주일학교 교사로 섬겼고, 직장생활까지 신앙을 이어왔다. 그런데 결혼하면서 교회에 다니지 못했다. 시댁은 예수를 믿지 않았고, 대쪽 같은 시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신앙을 유지하기 어려웠다. 더욱이 사업까지 시작해 너무 바빴다. 가족과의 갈등은 정말 지옥 같았다.

어느 날 새벽. 꿈속에서 하나님이 "어서 나오라"고 말씀하셨다. "사랑할 수 있는 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다. 점차 시어머니와의 갈등도 풀어갔고, 남편도 교회에 다니게 됐다.

그 덕분일까. 가정은 화평해지고, 사업은 순풍에 돛을 단 듯 했다. 연 매출이 수십억대에 이를 만큼 엄청난 성장을 이루었다. 단 하나 아쉬운 것은 남편이 사업상 여러 거래처 사람들을 만나기에 술과 담배를 끊지 못했다. 교회도 자주 나가지 못해 혼자 교회를 나가는 날이 많았다. 그때만 해도 우리 부부에게 위기가 닥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2005년, IMF 후유증이 있던 시기. 성격 좋은 남편이 술김에 형편이 어려운 거래처 사장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다. 그에게 10억 가까운 백지어음을 빌려주었다. 당시 회사 대표는 나였다. 남편은 내 결재도 없이 임의로 어음을 내주었다. 회사에 큰 타격이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잦은 다툼을 벌였다. 그날도 싸움 끝에 잠들었는데 새벽녘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

"딸아, 네게 많은 것을 주었는데 왜 남편이 잃은 돈에 연연하느냐. 모든 것을 내려놓아라."

번쩍 생각이 스쳤다. "하나님이 채워주셨는데 무엇을 바라나. 다 내려놓자"고 다짐했다. 그날 이후 믿음의 눈으로 남편을 바라보게 됐고, 격려와 인정을 통해 남편의 자존심을 되찾아주었다. 그간 쌓아온 신용으로 은행의 대출을 얻어 빚 문제도 해결했다.

하나님은 내게 많은 것을 주셨다. 시골 출신 빈털터리에게 많은 물질을 주셨다. 무엇보다 모든 것을 맡길 줄 아는 믿음과 지혜, 말씀에 따르는 것이 순리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다.

남편이 5년 전 갑상선 암에 걸렸지만 우리는 그 위기 또한 잘 극복했다. 나는 역경이 닥칠 때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했다. 우리 부부는 온누리교회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일에 앞장서고 있다.

많은 이들이 가정에서 고난을 겪는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남편을 칭찬할 때 더 큰 선물이 예비된다. 기쁨과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는 방법이 바로 그것이다.



✎ 신앙에세이 김현실 목사(남양주 온누리교회)

자녀에게 힘을 주는 '핵심기억'

"남편이 아이와 함께 자전거도 타고 즐겁게 놀았다면 지금 모습과 많이 달랐을 거에요…."

어느 권사님과 차를 타고 가던 중 나눈 대화다. 교회 앞 횡단보도에서 신호대기를 하고 있는데 아빠가 자녀를 자전거에 태우고 지나가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본 권사님이 눈물 흘리셨다.

그 권사님 부부는 돈을 벌기 위해 떨어져 살았다. 남편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을 했다. 가끔 집에 왔을 때 아들이 버릇없는 행동을 하면 혼을 내서라도 잡아보려고 했다. 그런데 아들은 성장하면서 혼내는 아버지를 가까이하기 어려워했다. 아버지를 무서워하며 피해 다녔다.

가족이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 갈등이 심해졌다. 아들은 집 밖으로 돌기 시작했다. 학업도 중단하고, 자기 비관에 빠져 술에 젖어 사는 인생이 되었다.

요즘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영화가 상영되고 있다. 추상적인 사람의 감정과 역동을 눈으로 구체화시켜 볼 수 있도록 만든 영화다. 사춘기 소녀를 중심으로 한 가족의 상황을 기쁨, 분노, 까칠, 우울, 소심이라는 다섯 가지 감정을 역동적으로 잘 그려냈다. 영화는 어린 시절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형성된 '핵심기억'의 중요성에 대해 표현하고 있다. 긍정적인 핵심기억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버틸 수 있는 힘이다.

성도님들께 묻고 싶다. 당신은 가족들과 함께 한 핵심기억이 무엇입니까? 앞서 말한 권사님의 아들의 마음에는 어떤 핵심기억이 자리하고 있을까? 그 권사님의 눈물이 현재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 목사로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우리 자녀들은 아빠와 행복한 기억이 얼마나 있을까. 가정도, 학교도 심지어 교회에서도 자녀들이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한다고 한다.

그래서 다른 만족감을 찾기 위해 PC방 등을 헤매고 있는 것이다. 나는 이렇게 바쁜 세상을 살아가는 가족들을 교회가 어떻게 도우면 좋을까를 고민했다. 고민 끝에 교회 안에서 멋진 기억을 만들기 위한 행사를 기획했다.

이른바 바쁜 아빠와 함께하는 '가족 추억 만들기'다. '아빠와 함께하는 기차여행', '아빠랑 나랑 찬양집회', '블레싱 페스티벌' 등의 회복축제를 열어 아빠가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3대가 함께 교회 본당에서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기기를 원했다. 아빠와 엄마와 함께 즐겁게 찬양하고, 엄마 아빠 품에 안겨 기도했던 시간이 행복한 시간으로 남기를 원했다.

프로그램에 참석한 한 아버지는 "아이를 등에 업고 뛰며 찬양하니, 옛날 아버지의 등이 생각났어요. 사는 게 힘이 들 때면 아버지의 등이 그립습니다"라며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다.

자신이 추억 속 아버지를 떠올리듯 자녀는 훗날 아빠와 함께 했던 시간을 기억할 것이다.

여름이다. 수련회와 아웃리치 기간이다. 가족이 함께 하는 휴가철이다. 교회 안에서 가족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사랑하고, 섬기며 아름다운 추억을 간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자녀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때가 닥치더라도 힘이 되어주는 부모,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부모로 기억되었으면 좋겠다. 부모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 신앙이 자녀들에게 힘이 되는 추억을 남기기 바란다.

20150809-1060-2_2012528 -90216 15. 8. 7. 6:43 Page 13

주일강단

〈3면에 이어〉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 지도자들은 엔트로피 법칙에 따라 미워하고 질투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신트로피 법칙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엔트로피 법칙과 신트로피 법칙이 늘 상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신트로피 법칙으로 살아가야합니다. 질투와 미움의 원리에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와 축복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면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증거해야 합니다.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랑까지

예수님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 우리 목숨을 내놓는 것이 마땅합니다"(16절).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내놓는 사랑을 통해 세상에서 신트로피 법칙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요 3:16).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증거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다른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마땅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마땅하다는 것은 기쁘게 여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무를 넘어서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정말 아는 단계에 도달한다면 앎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자신의 생명까지 내놓을 수 있는 사랑까지 발전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영적 목표입니다. 그 출발점이 어디일까요.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갖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나 자매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하겠습니까?"(17절).

이것이 시작입니다.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도와줄 마음이 없다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이 맞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재물을 가지고 궁핍한 사람을 돕는 것으로부터 시작해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사랑이 커져야합니다. 바로 그것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자녀들이여,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18절).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히 구하고, 구한 것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증거입니다.

"혹시 우리 마음에 가책을 받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우리 마음에 가책 받는 것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고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서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 때문입니다"(20~22절).

20절은 해석이 어렵습니다. 역사적으로 상반된 해석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와 요한 칼빈도 다르게 해석했습니다. 마틴 루터는 위로하는 구절로 해석했습니다. 칼빈은 정반대로 해석했습니다. 경고의 구절로 해석했습니다. 둘 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칼빈의 후예인 장로교이기 때문에 칼빈의 해석을 따라야합니다. 경고의 구절로 해석해야 합니다.

진실함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설 때 떳떳하고 가책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지적할 것이 있을지 모르지만 자책할 것이 없을 정도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 섰을 때 가장 후회하는 것이 주변 사람들을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한 것이라고 합니다. 마음속에 자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음에 자책할 것이 없이 사랑한다면 하나님께 구한 것을 확실히 받는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자책할 것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자책할 것이 없을 정도로 사랑하면 우리가 구한 것을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확실하고, 효과적으로 응답받는 조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친밀한 자녀가 되는 조건입니다.

"네가 굶주린 사람에게 열정을 쏟고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의 소원을 들어준다면, 네 빛이 어둠 가운데 떠올라서 네 어둠이 대낮처럼 밝아질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언제나 이끄시고 땡볕이 내리쬐는 마른 땅에서도 배불리시며 네 뼈를 단단하게 하실 것이다. 너는 마치 물 댄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다"(사 58:10~11).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깊은 친밀함을 누리는 자녀가 되는 것은 조건적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했느냐에 따라 더 깊은 사랑 가운데 거하는지가 결정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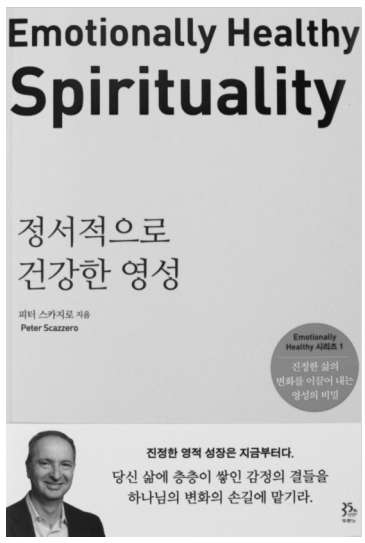
간신히 하나님의 사랑 받는 자녀, 간신히 구원받는 자녀가 아니라 구원의 감격과 축복을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으로서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신트로피 드라마를 써가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책 두란노 신간

영성의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
피터 스카지로 저 | 두란노 | 15,000원



우리는 몸에 이상이 생기면 쉽게 알 수 있다. 열이 나거나 기침이 나면 감기에 걸렸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처럼 말이다. 그런데 영성에 이상이 생기면 쉽게 알아차리기 쉽지 않다. 영성이 건강한지 아니면 아픈지 파악하기가 매우 힘들다. 영성은 아파도 열이 나거나 기침을 하지 않는다. 어떻게 하면 영성의 건강 상태를 알 수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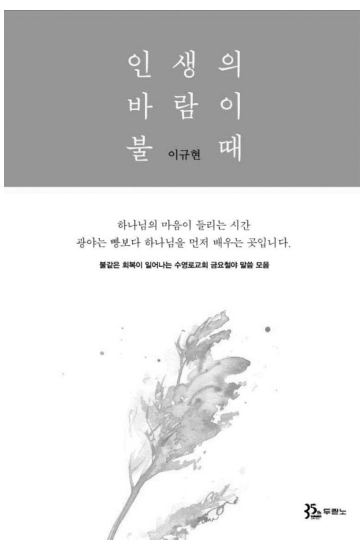
피터 스카지로는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에서 건강하지 못한 영성의 10가지 징후를 알려준다. 내 만족을 위해 하나님의 일을 하거나 분노, 슬픔, 두려움의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보다 사역에만 바쁘거나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것도 영성이 건강하지 않다는 증거다.

이 책은 26년 동안 담임목사로 섬기면서 하나님의 일에 돌진했던 피터 스카지로의 이야기이다. 그는 자신의 문제를 덮은 채 영혼 구원과 교회 성장을 위해 노력했다. 그럴수록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교회는 분열되었다. 그는 아내의 충격적인 선언을 듣고 삶을 돌아보게 되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영성은 병들어 있고, 죽음을 향해 가고 있었다.

그는 스스로의 문제를 직면하고 수도사적인 훈련을 받았다. 그로인해 가정이 회복됐고, 교회가 나날이 성장했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무시했거나 몰랐던 영성의 건강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광야로 가라

〈인생의 바람이 불 때〉
이규현 저 | 두란노 | 12,000원



여름이 되면 태풍이 온다. 태풍이 오면 바람이 심하고 폭우가 쏟아진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다. 마냥 햇살 좋은 날만 있지 않다. 때로는 태풍이 와서 몸이 날아갈 듯 거센 바람이 불고 비에 흠뻑 젖기도 한다.

현대를 살아가다 보면 나 홀로 광야에 서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이 책의 저자는 광야를 경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광야는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지나야 하는 필수코스라고 설명한다.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마 4:4).

저자는 광야에서 이 말씀을 깊이 깨닫고, 경험하게 된다고 말한다. 붙잡을 대상이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알아야한다고 강조한다. 광야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광야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삶에 노폐물이 쌓이고, 하나님 외에 의지할 것이 있다면 광야로 가라고 명령한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이다.

1060호게시판_20150809_925호 편성표 게시판(15면없음) 15. 8. 7. 오후 6:36 페이지 1

서빙고
02.793.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6:50 본당
2부 오전 9:00 본당
3부 오전 11:30 본당
4부 오후 1:50 본당
5부 (십자가의 길) 오후 4시 경찬홀
6부 (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시 본당
(일본어통역 지원)
7부 9시에 뜨는 별 오후 9시 본당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시 본당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20 본당
월요 치유집회
매주 월요일 오후 7:00 비전홀
화요 Holy Impact 집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본당
수요 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본당
수요 목양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30 본당
목요 경배와찬양
매주 목요일 오후 7:30 본당
목요선교집회
매주 목요일 오후 7:30 두란노홀
금요 회복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7:20 본당
금요 철야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9:50 본당
한마음정신회복예배
담당 : 손정훈 목사
시간 : 매주일 오전 11:20 선교관 101호
문의 : 김국중 팀장 (010-8885-6757)
S브릿지 예배
내용: 만33~44세 미혼 청년예배
주일 오후 1:30 두란노홀
문의: 김정섭 팀장 (010-3301-2897)
장애우 공동체 누리사랑부예배
매 주일 오전 11:00 선교관 콘서트홀
문의: 박모세 팀장 (010-5358-3648)
야베스맘예배(사별자모임)
매주 화요일 오후 7:00~ 8:30 선교관 403호
문의: 윤명자 팀장 (010-3217-9593)
문화 미디어 중보기도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7:00~9:30 콘서트홀
문의 : 전도본부 (02-3215-3214)
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청소년
시간: 매주일 오전 9:00 선교관 콘서트홀
문의: 김종영 전도사(010-2890-1707)
예수사랑부예배(청년지적장애우공동체)
매 주일 오전 11:30 서빙고 한동홀
문의: 최성훈 목사(010-8820-9191)
일본어예배
매주일 오후 2:20 선교관 한동홀
문의: 조승찬 팀장(010-2307-5547)

온누리M미션 외국어예배
안산 – 주일예배
러시아 예배 10:00 안산M센터II, 2층
캄보디아 예배 10:0 안산M센터I, 4층
미얀마 예배 10:30 안산M센터II, 3층
몽골어 예배 14:30 안산M센터II, 2층
네팔 예배 11:00 안산M센터II, 4층
열방 예배 09:00/11:30 안산M센터I, 1층
태국 예배 14:30 안산M센터II, 3층
스리랑카 예배 14:30 안산M센터II, 4층
베트남 예배 14:30 안산M센터I, 3층
필리핀 예배 15:00 안산M센터I, 4층
다문화꿈땅예배 11:00 안산M센터I, 3층
다문화파워웨이브 11:00 안산 스타트리
서빙고
몽골어예배 14:30 선교관 401호
러시아예배 14:30 선교관 302호
네팔예배 14:30 선교관 402호
아랍예배 14:00 본관 B102호
/ 매월 첫째주 선교관 402호
인천 몽골어 예배 14:30 인천 온누리교회
평택 몽골어 예배 11:30 평택 온누리교회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주 토 15:30~19:00 신관401호
문의: 김재영 팀장(010-2539-5665),
나지원 총무(010-3489-2080)
이스라엘을 위한 중보기도 모임
-서빙고: 매주 토 오전8:00 시온홀
-양 재: 매주 토 오전8:00 JDS홀
대학청년부를 위한 어머니 기도모임
매주 금요일 10:00~12:00 본관 B102호
문의 : 김기행 집사(010-8627-2098)
군 선교와 군입대 자녀를 위한 기도모임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7:30
장소: 서빙고 선교관 101호
문의: 02-3215-3214
차세대 수요 어머니 기도모임
일시: 매주 수요일 오전 9:15
장소: 서빙고 누리홀/양재 화평홀/도곡 온유홀
문의: 서빙고 02)3215-3525
양재/도곡 02)570-7553
마리아행전 중보기도모임
나라와 민족 위해 기도하는 기도부흥운동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1:00~2:30
장소: 신관 3층 드림홀
문의: 여성사역 (3215-3227)
묵상의집(WIN) 주일예배
일시: 매 주일 10시 남한산성 묵상의집
*셔틀운행
-양재역10번출구 9:00 출발
-복정역 2번출구 9:20 출발 서빙고

온비아 1년 과정
과목: 갈라디아서 8주, 로마서 8주, 그리스도인의 생활 12주
월요일 오전반 (10:00~12:30) 8/31_B102호
월요일 저녁반 (19:30~22:00) 8/31_B102호
목요일 오전반 (10:00~12:30) 9/3_B102호
토요일 오전반 (9:30~12:00) 9/5_러빙핸즈
비용: 17만원

온비아 마가복음
과목: 마가복음 8주
개강 및 장소: 화요일 저녁반
(19:30~22:00) 9/1_B102호
비용: 3만5천원
등록: 온누리교회 ischool 또는
www.beekorea.org
문의: 02-822-9480

생명의삶 QT 본문 이해를 위한 에스겔 개관 세미나
일시: 8월 17일(월)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한동홀(무료)
강사: 총신대학교 이희성 교수
신청: www.duranno.com/qt 온라인 접수
문의: 02-2078-3265

헬로맘 모집
일시: 8월21일~9월18일(매주 금)
10시30분~13시30분
대상: 임신을 기다리거나 출산전 후의 여성 (자녀동반 가능)
장소: 서빙고 시온홀
인도: 강미향 목사님
회비: 2만원 (간단한 브런치 제공)
접수: ischool 에서 수강신청
문의: 010-2786-6221

제21기 온누리 전도폭발훈련생 모집
일시: 주간반 9/1~12/15 매주 화 10:00~15:00
저녁반 9/2~12/9 매주 수 19:30~21:40
장소: 서빙고 온누리 콘서트홀 (B2)
회비: 7만원/온누리교회전도폭발
하나은행 573- 910008 -84705
접수: 9/9일 까지 아이스쿨 홈페이지 또는 주일통합데스크
문의: 주간반(김태리 팀장, 010-7900-3908),
저녁반(김숙경 팀장, 010-2231-6357)

두란노서원 생명의삶팀 디자이너 채용
업무내용: 월간지 "생명의삶" 표지, 내지 편집 디자인
근무형태: 계약직(1년 3개월), 주5일근무
지원자격: 3년 이상 5년 미만 경력 보유자
-편집 디자인 프로그램 사용 필수 (인디자인, 포토샵, 일러스트, 퀵 능숙자)
-동종업종, 잡지 편집 디자인 경력 보유자
-장애인우대, 국가유공자 우대
모집인원: 1명
전형절차: 서류전형 후 개별면접(면접 시 간단한 실무 테스트가 있을 수 있음.)
전형: 서류/면접전형 합격자에게 개별 안내
당사 채용사이트(현 채용공고)에서 직접 작성
(http://www.duranno.com/recruit/)
포트폴리오 (JPG 또는 PDF) 첨부
문의: support@duranno.com

양 재
02.570.7430

주일예배(사랑홀)
1부 오전 6:50 2부 오전 9:00
3부(열린예배) 11:30 4부 오후 1:50
5부(대학청년부 여호수아) 오후 4:00
6부(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00
7부 9시에 뜨는별 오후 9:00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00 사랑홀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20 기쁨홀
새신자를 위한 열린예배
주일 오후 7:00 사랑홀
월요QT예배
매주 월요일 오후 7:30 화평홀
화요성령집회
매주 화 오후 7:30 기쁨홀
수요오전여성예배
시간: 수요일 오전 10:30
장소: 양재 본당(사랑홀)
문의: 배수연 간사(570-7277)
수요예배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사랑홀
말씀: 이상진, 문영재, 박성희 목사
문의: 유제홍 간사(570-7437)
목요찬양예배
일시: 매주 목요일 오후7:50 기쁨홀
말씀: 이상진 목사
문의: 윤상학 간사 (570-7430)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 오후 11:00 사랑홀
브릿지33+ 예배
33세~44세 싱글 남녀를 위한 공동체
매주 주일 오후 3:00, 하용조 기념홀
문의: 이상민 팀장(010-4720-4669)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 안내
담당: 이정환 목사
시간: 매주 주일 오전 11:20
장소: 양재 트리니티 신축건물 304호
문의: 오탄 간사(02-570-7522)
Point5 예배
주일 오전 11:30 하용조 기념홀
차세대예배(Point5 영어와 한국어로 드리는 예배)
Jesus Rock 5세 ~ 초등1 (충성홀 11:30)
Jesus Crew 초등2 ~ 초등6 (JDS홀 9:00)
Jesus Vine 중등 ~ 고등 (충성홀 9:00)
도곡교육관 주일 9:00 예배
성인예배: 사랑홀 (숙명여고 대강당)
차세대예배(한국어)
영아부: 도곡교육관 꿈터(B동 1층)
유치부: 도곡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유년부: 도곡교육관 충성홀(B동 2층)
초등부: 도곡교육관 화평홀(B동 2층)
중등부: 도곡교육관 온유홀(A동 2층)
고등부: 도곡교육관 기쁨홀(A동 3층)
도곡교육관 주일 11:30 예배(영어)
Adult Service :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차세대예배(영어)
Hope Zone(Newborn~Age4)
: 도곡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Love Zone(Age5~Grades2)
: 도곡교육관 꿈터(B동 1층)
Joy Zone(Grades3~6)
: 도곡교육관 온유홀(A동 2층)
Middle School Group(Grades7~8)
: 도곡교육관 기쁨홀(A동 3층)
High School Group(Grades9~12)
: 도곡교육관 기쁨홀(A동 3층/오후1:30)
도곡교육관 주일 오후 2:00 예배 (청년부)
갈렙청년부예배: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사랑부 예배(장애 학생)
주일 오전 9:00 비전홀B
문의: 최재호 전도사(010-4336-3528)
불어예배
설교: Martin Baboka(마르땡 바보카)
일시: 주일 오후 2:00
장소: 양재 강의동 304호
문의: 010-4336-0952, *통역 지원
마리아행전 주중기도모임
대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여성
일시: 매주 수요일 13시~14시30분
장소: 양재 화평홀
문의: 배수연 간사(570-7277)
병원사역예배와 환우기도모임
장소 : 양재 비전홀A
시간: 매주 수요일 10:30-14:00
문의: 김정숙 팀장(010-4946-3832)
환우중보 및 심방요청을 받음

양재 화요 기도학교
일시: 9월 8일~11월 24일 오전10:00-12:00 / 12:30-14:30
(소그룹 중보기도) 선택
장소: 양재온누리교회 화평홀
신청기간: 9월 8일까지(300명 선착순)
담당: 강은혜 목사
문의: 이홍미 총무(010-5273-3173),
임수진(010-8911-9353),
강상혁 간사(02-570-7311)

선교재단 원두커피 납품업체 선정
신청: 신청서는 E-MAIL로 교부,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전화로 문의.
기간: 8.18(화) 5:00pm까지 제출
입찰참여신청서 제출(FAX 또는 E-MAIL) 후 확인 전화요망
현장설명회 참여업체에 한하여 참가자격 부여.
자세한 사항은 온누리교회홈페이지 참조
현장설명회일시: 8월 20일 오후 2시
장소: 온누리교회 신관 1층 Acts 29홀
현장 설명 시 세부사항 및 일정 배포
문의: 02-3215-3172, 010-3723-4299
(양현진/ 팀장: 강보라),
yhjsarah329@gmail.com

부 천
032.322.9686

주일예배
1부오전7:00/2부오전9:00/3부오전11:30/4부오후2:00/5부오후4:00(대청예배)/6부오후7:00(부흥예배)
새벽기도회 월~토 오전5:20 본당
차세대 예배
영아부-오전9:00,11:30 / 유치부-오전9:00,11:30, 2:00
유년부-오전9:00,11:30 / 초등1부-오전9:00
초등2-오전11:30 / 유초등부-오후2:00
중등부-오전11:30 / 고등부-오전9:00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수요목양예배 매주 수 오후 7:30
한사랑예배(새터민) 매주 오후 2:00 3층 꿈아이홀
사랑부예배(장애우) 매주 오전11:30 경찬홀(204호)
영어 예배 어린이(JEM) 오전 9:00 비전홀(508)
성인 오후 2:30 비전홀(508호)

수 원
031.895.6500

주일예배
1부 오전 7:00 / 2부 오전 9:00
3부 오전 11:30 / 4부 오후 2:00
5부 오후 4:00 (대학청년) / 6부 오후 7:00 (찬양예배)
새벽예배 월~토 오전 5:20 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수요어노인팅예배 매주 수 오후 7:45
차세대 주일예배
영아부 오전 9:00, 11:30
유아부 오전 9:00, 11:30, 유치부 오전 9:00, 11:30
유년부 오전 9:00, 11:30, 초등부 오전 9:00, 11:30
중고등부 오전 9:00 비전홀, 믿음홀
영어예배 아동 주일 오전 11:30 사랑홀
중고등부 오전11:30 믿음홀
성인 주일 오후 2:00 믿음홀

대 전
042.825.3642

주일예배
1부 오전 9시 본당 / 2부 오전 11:30 본당
3부 오후 2시 본당 / 4부 오후 4시 본당
주중예배
새벽예배 ▸ 월-금 오전 5:25 본당
토요새벽기도회 ▸ 매주 토 오전 6:00 본당
수요여성예배 ▸ 매주 수 오전 10:30 본당
수요저녁예배 ▸ 매주 수 오후 7:30 본당
차세대주일예배
예꿈(36개월~7세) 오전 09:00
꿈땅(초1~초6) 오전 09:00
영아부 오전 11:30 유치부 오전 11:30
유년부 오전 11:30 초등부 오전 11:30
중등부 오전 11:30 고등부 오전 9:00

남양주
031.565.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09:00 본당 / 2부 오전 11:30 본당
3부 오후 2:00 본당
주중예배
온누리미션예배(힌두권) 매주 주일 저녁 8시
사이닝글로리
새벽예배(월~토) 오전 5:20 3층 본당
수요여성예배 오전 10:30 3층 본당
수요부흥집회 저녁 7:30 3층 본당
차세대예배
영아부 오전 11:30 4층 미션홀
유치부 오전 11:30 5층 두란노홀
유년부 오전 9:00 4층 미션홀
초등부 오전 9:00 5층 두란노홀
중등부 주일 오전 11시30분 기쁨홀
고등부 주일 오전 09시00분 기쁨홀

평 택
031.651.9680

주일예배
주일 1부 오전 9:00 본당
주일 2부 오전 11:30 본당
주일 3부 오후 2:30 본당(대학청년)
새벽기도회 월~토 오전 5:00 본당
주중예배
화요여성예배 화 오전 10:30 본당
수요성령집회 수 오후 7:30 본당
차세대예배
예수님의꿈아이 오전 11:30 본당 2층
꿈이자라는땅 오전 9:00 본당 2층
파워웨이브 오전 9:00 파워웨이브교육관

인 천
032.437.9686

주일 예배
1부: 오전 9시 지하2층 본당 / 2부: 오전 11시 30분 지하2층 본당 / 3부: 오후 2시 지하2층 본당
젊은이예배 오후 4시 지하2층 본당
새벽예배 월~토 오전 5:20 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매주 수요일 오전 10:30)
수요저녁부흥예배(매주 수요일 저녁 7:40)
Basic큐티(임직자필수과정)
일정: 8월 29일~9월 19일(총4주) 매주 토 오전7시~9시
강사: 박성은A 목사
장소: 3층 경찬홀
대상: 온누리교회 등록교인
회비: 10,000원(교재비 포함), 선착순 30명
문의: 오상현 팀장(010-6343-2589)

강 동
02.475.9686

주일 예배
1부 오전 9:00 본당 2부 오전 11:30 본당
3부 (프라미스청년) 오후 2:00 본당
프라미스U 대학부 오후 2:00 사랑홀
차세대예배 (주일)
예수님의꿈아이(영아부) 오전 11:30 기쁨홀
예수님의꿈아이(유치부) 오전 11:30 두란노홀
꿈이자라는땅(유년부) 오전 11:30 드림홀
꿈이자라는땅(초등부) 오전 11:30 사랑홀
파워웨이브 오전 9:00 두란노홀
사랑부 오전 9:00 사랑홀
주중 예배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20 본당
수요오전예배 오전 10:30 본당
수요저녁예배 오후 7:30 본당

양 지
031.335.9686

주일 성인예배
1부 예배 / 9:00 / 2층 김사무엘홀
2부 예배 / 11:00 / 2층 김사무엘홀
3부 두드림예배 / 14:00 / 지하1층 박모세홀

차세대예배(주일)
예수님의 꿈아이(영아)/ 11:00 / 3층 주선애홀
예수님의 꿈아이(유치)/ 11:00/지하1층 무어홀
꿈이 자라는 땅 / 11:00 / 지하1층 위더슨홀
파워웨이브 / 11:00 / 3층 켐벨홀
대학청년예배 / 14:00 / 지하1층 박모세홀

주중예배
새벽예배 / 5:20 / 1층 시안홀
수요오전여성예배 / 10:30 / 2층 아펜젤러홀
수요선교예배 / 19:20 / 1층 시안홀

1060호게시판_20150809_925호 편성표 게시판(15면없음) 15. 8. 7. 오후 6:36 페이지 2

Onnuri 온누리교회

http://onnuri.or.kr

국내 온누리교회

• **서빙고**
박종길 목사 (02) 793-9686 (대표)
140-240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동 241-96

• **양재**
이상준 목사 (02) 573-9686(대표)
137-130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55
횃불선교센터

• **부천**
박형준 목사 (032) 322-9686
420-030 부천시 원미구 상3동 499-1번지

• **수원**
신기섭 목사 (031) 895-6500
446-908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128번지

• **대전**
박태영 목사 (042) 825-3642~4
302-120 대전시 서구 둔산동 1173 굿모닝빌딩 3~6층

• **남양주**
안광국 목사 (031) 565-9686~8 (대표)
471-856 구리시 토평동 966 진성빌딩 3~5층

• **평택**
김소리 목사 (031) 651-9680(대표)
450-020 경기도 평택시 합정동 963-7 2,3층

• **인천**
서경남 목사 (032) 437-9686 (대표)
405-835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53-7

• **강동**
최원준 목사 (02) 475-9686
134-020 서울시 강동구 천호3동 453-19
나비빌딩 11, 12층

• **양지**
도육환 목사 (031) 331-8171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추계리 239번지

■**기도처**
• **태안온누리**
송영동 목사 070-8627-7676
충남 태안군 태안읍 동문리 579번지 온누리교회 태안온누리

• **서산온누리**
송영동 목사 (041) 665-9686
충남 서산시 동문동 1-2번지 서산온누리교회

• **봉화온누리**
엄정순 권사 (054) 673-7428
경북 봉화군 명호면 관창리 1275

• **옥천온누리**
황순임 권사 010-4414-8026
충북 옥천군 옥천읍 가화동 현대아파트 상가 지하 1층

• **진새골온누리**
주수일 장로 (031)-767-2776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대쌍령리 447-27

해외 온누리교회

■**미서부**
• **얼바인**
권혁빈 목사 1-949-261-9100
17200 Jamboree. Irvine CA 92614 U.S.A.

• **로스앤젤레스**
이정엽 목사 1-213-382-5658
743 South Grand View st.
Los Angeles, CA 90057. USA

• **샌디에이고**
금경연 목사 1-619-847-4147
8990 Miramar Rd. Suite 275 San Diego, CA 92126

• **산타모니카**
정장철 목사 1-213-235-5791
1420 Yale St. Santa Monica, CA 90404

• **괌**
김형철 목사 1-671-734-8522
155 Father Duenas St. Mangilao Guam 96913

■**미동부**
• **보스턴**
이훈 목사 1-781-933-7044
73 pine st. Woburn MA 01801 U.S.A.

• **네이퍼빌 시카고**
이중재 목사 1-630-753-9191
1433 N Main St. Naperville IL 60563

• **노스 시카고**
윤길중 목사 1-847-940-1900
10 Deerfield Rd, Deerfield IL 60015 USA

• **뉴욕IN2**
Marc Choi 목사 1-212-427-2055
316 East 91st St., New York, NY 10128

• **뉴저지**
Marc Choi 목사 1-201-461-4010
1449 Anderson Ave., Fort Lee, NJ 07024

■**미북부**
• **포틀랜드**
곽성환 목사 1-503-628-2000
19650 SW Scholls Ferry Rd.
Beaverton, OR 97007 USA

• **앵커리지**
박재영 목사 1-907-569-9191
4801 old seward HWY Anchorage, AK 99503

• **밴쿠버**
이한규 목사 1-604-888-0092
19711 86th Ave.
Langley, BC V2Y 1Z5 Canada

■**오세아니아**
• **시드니**
김철진 목사 61-2-9649-1180, 1190
18 MAIN Ave. Lidcombe NSW2141 Austrlia

• **오클랜드**
유현목 목사 64-21-0810-3132
7 Tamdale Grove, Albany, Auckland, New Zealand

■**일본**
• **동경**
문봉주 목사 81-3-6658-1530
(130-0012)Tokyo Onnuri Vision Church Saisei Kinsicho Bldg. 3F, 8-11, 2Chome Taihei, Sumita-ku, Tokyo, JAPAN

• **오사카**
이영선 목사 81-6-6121-2015
Naniwa 3F 1-3-19Higasisinsaibasi Chuoku Osakasi Japan 542-0083

• **우에다**
하카마타 미키 목사 81-26-821-4566
Nagano-ken Ueda-shi Oaza Suwagata 1377-64 JAPAN

• **요코하마**
서현 목사 81-45-641-6468
(231-0012)Yaomasa Bldg.4F,3-63 Aioi-cho, Naka-ku, Yokohama-shi, Kanagawa-ken, Japan

• **야치요**
니시야마 신이치 목사 81-47-482-1299
(276-0045)832-2, Oowada, Yachiyo-shi, Chiba-ken, JAPAN

• **나고야**
김철희 목사 81-52-938-5011
(454-0974) AICHI-KEN NAGOYA-CI NAKAGAWA-KU SHIMAI-CHO61 EHWA DAIAMOND 2F

• **교토**
야마나카 토모요시 목사 81-75-748-9303
Saiin Pram Bld 6F, Sanjocho 14, Saiin Wookyoku, kyoto japan

■**중동**
• **아부다비**
김태완 목사 971-2-665-7754
opposit embassy of Viet Nam, 23rd street, Al Mushrif, Abu Dhabi, UAE

■**동남아시아**
• **베트남**
김영철 목사 84-8-5412-2773
3SL 20-1 Grandveiw C, Phu My Hung, Q7, HCMC, Vietnam

■**중국**
• **북경**
강부호 목사 86-10-5301-9700
北京市朝阳区来广营西路(北京超 江达物业管理有限公司公司院内(大地公司-onnuri)
Beijingshi chaoyangqu laiguangying xilu Beijing chaojiao Jiangda-Wuye guanli youxian gongsi (company)

• **단동**
김대진 목사 86-415-313-6811
中国 辽宁省 丹东市 开发区 口岸贸易区 1区 D组 102号 韩国人 教会 王英
ZHONGGUO LIAONINGSHENG DANDONG-SHI KAIFAQU KOU'AN MAOYIQU 1QU DZU 102HAO

• **대련**
강은수 목사 86-411-8228-5253
辽宁省 大连市 中山区 春园里 春海巷二巷(526路炮台山终点站)
Liaoning-Sheng Dalian-Shi Zhongshan-Qu Chunyuan-Li Chunhaijieerxiang (526lu Paotaishan zhongdianzhan)

• **상해**
박만규 목사 86-21-5422-5801
中国 上海市 闵行区 漕宝路 1243号 3楼388室
Shànghǎishì Mīnhángqū Cáobǎolù 1243hào yǒngwèishāngwùdàshà 3lóu 388shì

• **장춘**
박시형 목사 86-158-0431-5714
中国 吉林省 长春市 南关区 永长路 213号 onnuri.
zhongguo jilinsheng changchunshi nanguanqu yongchanglu 213hao onnuri.

• **청도**
최승구 목사 86-532-8801-2930
中国 山东省 青岛市 崂山区 香港东路69号
凯旋山庄 27号楼 1楼 网点
Zhongguo Shandongsheng Qingdaoshi Laoshanqu Xianggangdonglu69 Kaixuanshanzhuang27haolou 1lou Wangdian CHINA

섬기는 분들

◈담임목사
이재훈

국내 온누리교회

◈캠퍼스 담당목사
박종길 이상준 박형준 신기섭
박태영 안광국 김소리 서경남
최원준 도육환

◈부목사(전임)
강미향 강승윤 강일영 강일하
권오향 권용갑 김경훈 김관수
김도균 김도윤 김병조 김상수
김성욱 김성원 김승수 김승완
김승훈 김영배 김영진 김영창
김요성 김윤식 김재석 김정숙
김정순 김정희 김종민 김종아
김찬호 김태용 김현실 김홍주
노규석 노치형 노희태 렵문홍
마이크리 문영재 박대원 박성은A
박성은B 박성천 박성희 박세웅
박승재 박승훈 박윤헌 박정호
박철웅 배홍일 백상욱 서재범
석승호 성중원 손신국 손정훈
송영동 신동식 스티브차 양성민
양재경 여성민 오은규 원유경
유선식 유수열 유영순 윤경숙
윤석원 윤요엘 안광복 이기원
이기진 이기훈 이길탁 이동훈
이민욱 이상진 이서진 이윤재
이원진 이재원 이재정 이재환
이정환 이준호 이찬우 이해영
이형석 이 훈 임용성 임항재
장시혁 전신익 전재표 전현규
정상훈 정웅규 정재륜 정재욱
정현석 정형권 정호옥 조동욱
조병홍 조바울 조준목 조현수
조호영 지대근 차명권 최범석
최성민 최성석 최영민 최용준
최혁중 채기석 한화수 홍기완
홍성인 허원희 황재명 황종연
황준서 예꿈기업부

◈전도사(전임)
김영숙 김용민 김재승 김종호
김창옥 박서루엘 박승훈 배행삼
변대섭 우윤상 정성훈

◈경배와찬양 목회자
하스데반 이기복

◈협력목사
김도일 문성모 이기복

◈부목사(파트)
강은혜 곽상학 김도균 대빈드라 라즈
한일복산다 마주마누룽 배랑 라실리 보즈와즈배타
배성우 손 숙 신정빈 성루아마농
안은경 안희진 이태희 유세르게이
윤용국 최봉오 최성훈 최새롬

◈전도사(파트)
강동명 강병천 강상희 강지영
강한성 권국희 고인호 고예아씨 사은
김기태 김대운 김덕기 기호진
김라경 김민서 김선미 김선재
김세아 김세현 김소리 김영신
김요환 김용석 김은영 김은하
김재희 김종영 김진석 김진아
김진하 김찬숙 김창수 김희연
김혜연 김혜경 길혜영 박광규
나정원 민경윤 문장원 박광규
박경민 박국이 박은자 박이호
박준희 박종익 박지예 배순양
배영훈 백도훈 서영희 서 철
심형보 송지은 아티프자반아 양은주
우경일 유 경 유승현 유진아
윤모세 윤은숙 윤상복 윤수신
윤정노 윤중구 윤준석 윤지연
윤현규 윤형립 이강현 이경선
이다솔 이덕주 이미령 이석환
이성훈 이승윤 이우람 이유행
이은경A 이은미 이은실 이지원
이진이 이정도 이재석 이재설
이준인 이종태 이종현 이 준
이하니 이현대 이현석 이혜심
임경헌 임선아 임요한 장동원
임정남 오스라 오일귀 정수연
장정주 장재원 정구현 정에스더
정유희 전윤정 정영희 정지혜
정지환 정진아 정한효 조덕현
조상훈 조성광 조양훈 차제이미
천정우 체데아요시 최규종 최새필
최원찬 최유리 최재호 최현웅
하 엽 한대우 한승우 한영철
허영은 홍정표 홍세녹

◈사역장로
강인지 권도원 김경선 김경철
김광선 김국융 김남열 김명철
김석인 김선래 김선택 김성순
김수광 김수웅 김영길 김원경
김원규 김원균 김원중 김이곤
김인화 김종건 김종승 김주흥
김주현 김진국 김철수 김학모
김현철 류지영 문경남 문형남
박병익 박용국 박찬빈 박 공
백승웅 백호현 서진봉 서창희
서찬교 성창섭 송만석 송재길
신만인 신우권 안국영 양재수
엄태진 오성연 우광방 원우현
유완영 유재천 윤성열 윤안민
윤지준 이강범 이국주 이두송
이만식 이무웅 이병현 이상욱
이영걸 이영세 이영철 이승희
이용경 이용하 이용대 이은주
이창남 임광택 장양희 장현석
정돈영 정순풍 정윤채 정인순
정용화 정재탁 정희태 조규상
조성근 조향진 주수일 주웅일
차승철 최선수 최 명 최희영
하영철 하용기 한종대 홍기명
홍성재 황용오 황재규

◈시무장로
강기석 강부순 강신익 강영재
강영중 강의선 강찬석 강철호
고광필 고 건 고대이라 고영주
곽진성 구재영 권득한 권영석
권오섭 권오혁 권용성 권용한
권칠준 김기영 김광동 김관근
김관식 김기호 김남식 김두진
김만순 김명세 김명종 김명훈
김명현 김민호 김병순 김병옥
김상섭 김상인 김상집 김선호
김성균 김성묵 김성종 김성진
김수역 김승열 김연상 김영수
김영욱 김영한 김 완 김 완
김용기 김용성 김 웅 김 원
김윤식 김의득 김인선 김장열
김재욱 김재일 김종성 김준규
김준영 김창욱 김철민 김철주
김하중 김해기 김형경 김형식
김형중 김화수 김효구 나상권
나영욱 남명현 남상길 남상옥
남정진 노기홍 노재한 노흥규
류기범 문성기 문영기 문창극
문창호 문충실 명영찬 민문기
박구병 박대호 박덕현 박두원
박명균 박대흥 박봉래 박상송
박석봉 박성규 박성근 박순길
박영국 박영태 박영태 박영한
박우형 박일구 박일면 박종현
박태성 박현규 박형민 박흥균
박흥선 배기영 배 문 백남인
백홍기 상병선 서명수 서성렬
서성현 성주명 손기철 손정래
손한기 송동섭 송영범 송영태
송유신 송일섭 송종환 송창도
신무환 신민호 신영각 신학철
신헌승 신현길 신현종 신현철
심상달 심재욱 심창구 심춘보
심희돈 안동화 양상식 양유식
안종인 안태환 양충식 오상록
양주현 양춘경 우승구 유병진
오성훈 용내문 유윤하 유 형
유병훈 유윤하 유재홍 유 형
육동건 윤기홍 윤석우 윤영각
윤영섭 윤영오 윤현덕 윤형주
이건재 이경찬 이기증 이길수
이광형 이동규 이동희 이관수
이남식 이동기 이상도 이석일
이봉의 이상기 이영근 이영복
이수완 이승배 이 철 이우곤
이은일 이인용 이장로 이재경
이재규 이재준 이재훈 이정근
이중근 이한열 이해탈 이해영
이현조 이홍선 이화영 이희주
임광순 임병수 이정구 이종길
임현태 임희창 임영열 임 훈
장경문 장경식 장 광 장광열
장규환 장선철 장형준 전구영
전영수 전정하 정경열 정대서
정명호 정문규 정보원 정병균
정성기 정수업 정영기 정영열
정영주 정운섭 정운오 정재현
정진하 정진호 정태경 정파종
정학영 정희원 조대희 조성현
조정구 조희동 주재량 차준구
차준한 천영무 최도성 최득린
최민철 최상근 최석민 최성완
최주관 최진성 최창규 최창수
최충길 최한우 최현재 피터웰디
편무옥 하성기 한갑수 한규종
한덕종 한백진 한양희 한장격
한춘희 한형식 한공식 함일성
함정철 허광수 허복만 허영남
허필우 허형석 홍덕표 홍범식
홍성호 홍의택 홍정표 홍종철
홍해남 황병원 황영옥 황의서

◈명예장로
마흥규 문태준 박동순 양원명
이용만 이원로 이혁상 임대지
장옥룡 장응복 정광택 정병두
정병주 정상건 지성한 황용식

◈협동장로
강승모 권준길 김갑선 김정훈
김 준 남영태 류수광 라비드박스
박재인 박형규 양호승 우상근
유재건 이경희 임웅규 전태경
정지석 주치수 최대화 최원호
최종훈 추교명 함지언 황재익

◈성가사
강충현 강혜영 김기덕 김건주
김세일 김수정 김은경 김정겸
김정환 김지형 김혜경 김희정
남윤창 박정규 송정희 신수정
신준환 오승현 오지훈 오희경
유선애 윤은희 이근숙 이미선
이민호 이신영 이수정 이세미
이수연 임진순 조미라 조정훈
전병곤 정성미 채미현 최경열
최영은 최윤석 최지선 최재영
최훈희 홍용식 홍정표

◈반주자
김기아 김병성 김선경 김성규
김수현 김순인 김연아 김은섭
김은실 김은영 김인영 김주나
김지열 김지희 금민희 남궁진
노성희 박선희 박 숙 박영숙
박진용 방 휘 석지혜 이혜진
안은경 안은영 양지연 양현석
우경선 유재영 윤지영 윤정희
윤현진 이강석 이나래 이예진
전승혜 정경미 정다혜 조영혜
조한나 최은미 한은미 황대준
배원신 강영은

해외 온누리교회

◈담당목사
강부호 강은수 곽성환 권혁빈
금경연 김대진 김영철 김철진
김철희 김태완 김형철 나사해산해
마크최 문봉주 박만규 박시형
박재영 서 현 에녹카토요시 유현목
윤길중 이영선 이정엽 이중재
이한규 이 훈 정장철 최승구
하카타다 마키

◈부목사
강일하 권희경 금동섭 김미정
김병석 김보라 김인숙 김태환
문성일 박신웅 박수환 박주영
박찬민 박희창 백인호 서성광
심상현 손병호 오 민 우지노 마사코
유동우 유정훈 윤희철 이경호
이경희 이성권 이세영 이신석
이일표 이은상 이종실 이한성
조경화 조요셉 최정혜 홍현철
최정무 허 민 홍세반 James Park
Lee Yi Sam An

◈전도사
강성근 강찬호 강창환 김대준
김 산 김산성 김성진 김성희
김인혜 김정욱 김지은 김지현
김진완 김현경 노경호 레이첼 백
마커스 문하나 민성민 박우람
박유리 박종구 박지혜 박태훈
박현얼 박현욱 방지남 배윤희
백일승 샘 리 서민표 설산정
손미경 손주은 송준헌 신기원
신기훈 안지현 연공주 윤경선
이상수 이수연 이재경 이지나
이지명 이진희 이현우 장세윤
전희동 정동윤 정동윤 정바울
정선진 정인교 정호석 조 단
조창희 최성미 최은정 최정수
케이라틴아메리카 크레아시 헤구 하보라 하예찬
하트리 타케시 핸슨오 홍가람 홍승의
황혜선 Christine Shin David Kim Jeana Lee
Joe Lee Jonathan Kim Tonnie Njoku

◈장로
김경덕 김재동 백 학 손진성
신중수 이덕한 이상덕 이만영
이문호 장우진 정길안 조록형
찰스리 함선호

◈명예장로
김용석

◈협동장로
강광일 강봉림 김경문 김동민
김연수 정두호 정석환 최승호
윤한돈 이재원 임헌식 최태영
김종수

◈성가사
고양숙 김성수 김용재 남명호
노용진 도승희 박민규 박선영
박소영 박우람 송희경 엄지영
여훈필 염혜숙 우아경 이정민
이정우 이종현 정영진 정현경
조경화 조요셉 최정혜 홍현철
황애란 황진주

협력

■ **두란노바이블칼리지**

창조과학콘서트
일시: 8월 22일(토, 14:00~17:30)
대상: 창조과학에 관심있는 부모 & 자녀, 교사 & 학생 外
내용: 창조의 궁금증을 재미있게 풀어내는 명쾌한 창조과학 이야기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경찬홀
문의: 02-2078-3456

감정과 신앙
일시: 8월 24일(월, 19:00~21:30)
대상: 믿음과 감정 사이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
내용: 믿음 안에서 자신의 감정을 관리하는 법
장소: 온누리교회 도곡교육관
문의: 02-2078-3456

온누리신문
등록번호 다-3802호
발행인: 이재훈
편집국장: 문창극
편집부장: 김남원
기자: 정지은, 정현주, 김현준, 김미림
사진: 여준원
140-026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347-11
전화: 02-3215-3193 홈페이지: news.onnuri.org
온누리신문은 재생용지를 사용합니다

온누리 복지재단

군포시청소년쉼터하나로 자원봉사자 및 후원품 모집
검정고시(사회,과학,윤리,국사) 교육 자원봉사자
악기(통기타) 후원 모집
문의: 임재금 팀장(031-399-7997)

온누리요양센터 입소자 모집 및 요양보호사 구인
문의: 이주현 과장(031-334-9090)

시립동부데이케어센터 이용자 모집
문의: 김도현 사회복지사(3407-2738)

용산노인종합복지관 SAY3기 시니어자원봉사자 모집
내용 : 외국 대학생과 한국어로 대화 및 소통
시간 : 2015년9월 ~ 12월(주 1회 9:00 ~ 10:30)
장소 : 복지관 4층 정보화교실
신청기간: 8월19일 17시까지 신청접수접수
문의 : 박민영 사회복지사(02-794-6100)

청파노인복지센터 자원봉사자 모집
내용: 경로식당 배식 및 설거지
활동시간: 평일 10:00 이후(요일선택 가능)
문의: 이찬희 사회복지사(703-6011)

번동코이노니아 자원봉사자 모집
지적장애인들에 대한 봉사의 마음이 있으신 분
문의: 이영환 사회복지사(985-3609)

재 정

십일조 계좌: 하나은행 573-810034-10105
해외선교계좌: 하나은행 573-810034-09105
비전의땅 헌금: 하나은행 573-910001-23005
* 은행계좌로 송금시 이름과 주민번호 앞 네 자리 또는 여섯 자리(김모모501010)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 담

■ **서빙고**
온누리 상담실(선교관 지하 1층)
상담접수: 02-793-2997~8 (모든 상담 사전예약 필수)
(화~금: 오전10:00~오후5:00, 토~일: 오전10:30~오후3:00)
면접상담 신앙, 개인, 부부, 가족, 아동, 청소년 상담, 미술치료
전화상담 오후 1:30이후에 가능
심리검사 MMPI-2, MBTI, 종합심리검사, 에니어그램, U&I 학습, 진로탐색검사
특수상담 세무상담: 첫째 주일 오전 10:30~12:00
정신과, 법률상담: 둘째 주일 오전 10:30~12:00
암환자 상담: 주일 오후 3:00 이후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상담: 수요일 오후

■ **양 재**
온누리상담센터(원형커피숍 자동문안쪽)
상담접수: 570-7536~7(상담예약 필수)
개인, 부부, 가족, 아동, 청소년(영어 상담 가능)
화~금: 오전 10시~오후 5시, 토~일: 오전 10시~오후 3시
각종 심리검사 및 집단 치유 프로그램
법률 상담: 일요일 오전 10시 30분~11시 30분
세무 상담: 둘째 주일 오전 10시 30분~11시 30분

결혼·소천

■ **결혼**

8월 14일 금요일 저녁 19:00 양재 사랑홀
최승구, 오정희(온누리교회 목사)의 아들 최종욱 (온누리교회)
이세현, 박미애(온누리교회 안수집사, 권사)의 딸 이수정(온누리교회)

■ **소천**

7/27(월) 강남A 허경식 성도 모친상 고 이복남
7/29(수) 분당B 윤효순 권사 부군상 고 이범상
7/30(목) 동대문중랑 이영숙 권사 시부상 고 이종화
7/30(목) 일산 정무인 집사 모친상 고 장찬분
7/30(목) 고양은평 홍덕표 장로 부친상 고 홍순주
8/1(토) 성동광진 이미세 자매 부친상 고 이양노
8/1(토) 가정사역 소재희 형제 부친상 고 소홍규
8/2(주일) 일산 유종남 성도 부친상 고 유관호
8/3(월) 서초D 방현 성도 모친상 고 정순옥
8/3(월) 양재 이인국 집사 모친상 고 유시숙
8/3(월) 용산 임영숙 성도 시부상 고 지용환
8/4(화) 송파 차기환 집사 빙모상 고 이현자
8/5(수) 양재 박미나 성도 부군상 고 황승택
8/5(수) 양천 박인철 집사 부친상 고 조천묵

1060호게시판_20150809_925호 편성표 게시판(15면없음) 15. 8. 7. 오후 6:36 페이지 3

제1회 CGNTV <생명의 삶> QT간증 수기 공모전 수상작으로 제작된



수상작 시청방법. YouTube 유튜브 접속 후 '생명의 삶 QT수기 당선작' 검색

제2회 CGNTV [생명의 삶] QT 간증수기 공모전

큐티를 통해 경험한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

◆ 공모주제. 큐티를 통해 경험한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

◆ 접수기간. 2015. 8. 31 (월) 까지

◆ 당첨발표. 2015. 9. 16 (수) * 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 예정

◆ 응모방법. ① 온라인 접수 〈CGNTV 홈페이지 접속 후 공모전 접수페이지 클릭〉
② 이메일 접수 〈cgnqt@cgnmail.net〉
③ 우편접수, 방문접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59길8 CGNTV 편성기획팀〉

◆ 시상내역.

최우수상	우수상	입상	큐티상
1명	외식상품권 (15만원) 3명	5명	10명
아이패드 미니	외식상품권 (15만원 상당)	성경책+성경 독서대	생명의 삶 정기구독권 (6개월)

* 참가하신 모든 분들에게 CGNTV 볼펜 및 기념품을 보내드립니다.
* 일부 수상작은 CGNTV 프로그램으로 제작됩니다.

글로컬 선교교육방송 CGNTV Christian Global Network Television *문의 : 02-3275-9518